

광복 후 일본의 독도 침략과 한국의 수호 활동*

박 병 섭**

〈목 차〉

1. 머리말
2. 광복~1953년 일본의 독도 침탈
3. 1954년 독도 공방전
4. 1955년 이후 순시선의 독도 침입
5. 맺음말

〈국문초록〉

광복 후 일본정부의 독도 침략은 1953년에 시작되었다. 5월에 시마네현(島根縣) 수산시 현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독도에서 한국 어민들의 어로를 확인하자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독도) 단속'을 결정하였다. 6월 일본 순시선의 무장한 임검반이 독도에 상륙해 일본의 영토표주를 세우는 한편, 어로 중인 한국 어민들을 심문하고 퇴거를 명하였다. 이즈음 일본 정부는 독도 탈환의 구체적인 방도를 세웠다. 첫째 방도는 순시선을 자주 독도에 파견해 한국 어민의 어업을 막는 것이며, 그 후 1년 동안에 26번이나 순시선을 침입시켰다. 한국 측은 이런 활동에 분노해 어느 때는 울릉경찰서 순라반이 순시선을 총격하고 일본의 영토표주를 철거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영토표주가 수차례 철거되어도 그때마다 새 영토표주를 곧 세웠다. 결국 영토표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954년 5월 중순까지 독도는 80% 일본에 침탈당하였다.

독도 탈환의 둘째 방도는 독도와외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본 어민들의 두절된 어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며, 1954년 5월에 실시되었다. 이 어업의 성과는 적으며, 일본 어민들은 독도는 가치가 낮은 섬임을 알고 다시는 독도에서 어업을 하지 않았다. 자연히 독도

* 본고는 “영남대 독도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가필·수정한 것임.

** 일본 竹島=독도연구넷

탈환의 둘째 방도는 사라졌다. 또한 탈환의 첫째 방도도 5월부터 한국 해양경찰대가 독도에 드나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시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8월부터 한국은 관민 공동으로 독도를 본격적으로 경비하고 순시선을 총격 혹은 포격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은 독도 탈환 방도를 포기해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순시선의 침입은 줄고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매년 1번 정도로 됐다. 그러나 1977년에 일본이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하자 순시선이 독도 지근거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반격을 받아 퇴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해에 한국도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하자 일본 순시선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독도 해역으로 침입할 것을 삼가게 되었다.

주제어: 해양경찰대, 순라반, 독도자위대, 헤쿠라 총격사건,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일본 순시선

1. 머리말

광복 직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은 SCAPIN 677에 의해 분리되었다. 또한 일본 선박이 독도 해역 12해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맥아더라인(SCAPIN 1033)에 의해 금지되었다. 이런 명령은 잠정적인 조치이며 독도의 귀속은 최종적으로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결정돼야 하였다. 그러나 영·미 양국이 최종적으로 공동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한 미국과 일본 영토 밖으로 생각한 영국 사이에 독도는 아무 협의가 없었다.¹⁾ 결국 1951년 9월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독도는 아무 것도 규정되지 않았다.

이런 독도의 귀속에 대해 일본에서 시마네현(島根縣) 외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원래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였다. 신문 보도를 보

1) 박병섭,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연구』 16호, 2014, 178~186쪽; 박병섭,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 『STRATEGY 21』 35호, 2014, 44~48쪽.

더라도 일본의 패전 후 일본 3대 신문의 도쿄(東京)판에서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다룬 기사는 1945년부터 1951년 말까지 《아사히(朝日)신문》의 3건뿐이며 《요미우리(読売)신문》과 《마이니치(毎日)신문》에는 독도에 관한 기사가 없었다.

또한 일본국회에서도 독도에 관한 발언은 같은 기간에 불과 2건이었고, 그 중 하나는 강화조약에 의해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된다는 견해였다.²⁾ 일본국민의 영토에 대한 관심은 류큐(琉球, 沖繩)열도나 북방4도가 중심이며 중요도가 낮은 독도 등은 거의 무시되었다. 이는 일본외무성도 마찬가지다. 외무성은 1947년에 영문의 영토조서 제4권에 중요도가 낮은 다이토지마(大東島),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리앙쿠르암(독도), 울릉도를 기재하고 미국에 제출했지만 이 중에서 다이토지마 외는 그 후에 미국에 대해 아무 제의를 하지 않았다.

대저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미·일 협의에서 영토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일본정부는 대미 교섭에서 중요도가 높은 류큐, 북방4도를 꺼냈지만 미국은 포츠담선언에 따라 영토문제는 해결된다, 즉 일본 주변 섬들은 연합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해 일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영토에 관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일본의 견해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경위에서 시마네현에서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역 외로 댔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이에 당황한 시마네현 당국자는 외무성과 협의한 결과 겨우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시마네현에 독도의 역사를 조사하도록 의뢰하였다. 이때부터 외무성 및 시마네현에서 독도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1952년 4월 28일에 발효해 일본은 독립했는데, 그 3일전에 연합국 총사령관(SCAP)은 맥아더라인을 폐지하였다. 이런 사

2) 박병섭, 전계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176쪽.

태를 예상해 한국은 조약 발효 3개월 전에 평화선을 선포해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켰다.

일본외무성은 이에 항의하는 한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하나가 미군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시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독도를 주일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7월 26일 미·일 행정협정 2조에 규정된 미·일 합동위원회는 일본이 주일미군에 제공할 시설로 다케시마(독도)를 지정했으며 외무성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선박이 독도로 항행하는 것이 일본 국내법상으로 다시 불가능하였다.

한편 이 지정은 한국을 무시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독도로 출어한 어민들이 미군기의 폭격을 당하는 제2차 독도폭격사건이 1952년 9월 15일에 발생하였다. 한국정부가 이를 미국에 항의하자 다음 해 1월 20일에 미군은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³⁾ 일본에서는 늦게 3월 19일에 이르러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독도의 연습장 지정이 취소되었다. 이를 외무성은 5월 14일에 관보에 공고했으며, 이즈음부터 일본 선박이 공연히 독도로의 침입을 시작하였다.

일본 선박의 독도로의 도항에 관한 선행연구로서 먼저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의 저서를 들 수 있다.⁴⁾ 다무라는 시마네현 관리로서 시마네현에서 발간된 신문 등을 바탕으로 간단한 연구를 하였다.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연구도 이와 비슷하다.⁵⁾ 한편 일본인의 독도 침입에 대해 한국 측의 대응도 자세히 조사한 연구로 정병준의 논문을 들 수 있다.⁶⁾ 그런데 이들 연구가 인용한 일본 자료는 보도 기사가 중심이며 1차

3) 외무부, 『독도문제 개론』, 1955, 47쪽.

4) 田村清三郎, 『竹島問題の研究』, 1955;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 1965.

5)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6) 정병준, 『독도 1947』, 돌베개, 2010; 정병준, 「1953-1954년 독도에서의 한일충돌과 한국의 독도수호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1집, 2012, 389-449쪽.

자료는 거의 없다. 이에 반해 박병섭은 외무성 및 해상보안청의 1차자료를 분석해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을 연구하였다.⁷⁾ 특히 해상보안청의 자료는 일본의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직접 입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1953년뿐이었다. 본고는 이 연구를 발전시켜, 한국이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한 1978년 전후까지 일본의 독도 침략과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수호활동을 밝힌다.

본고에서 일본 자료를 인용할 때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고 필자의 주를 [] 안에 넣는다. 또한 일본 자료에서 다케시마(竹島)는 독도를 가리킨다.

2. 광복~1953년 일본의 독도 침탈⁸⁾

1) 일본의 독도 침탈 개시

광복 후 처음으로 일본인이 독도에 침입했다는 보도가 1947년 4월에 있었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시마네현 사카이(境) 사는 일인이 동섬독도는 자기 개인의 것이라고 조선인의 어업을 금하고”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였다.⁹⁾ 이 일본인은 광복 전에 독도에서 어업을 한 관계자로 보인다. 이런 관계자를 통해 이케하타 쓰토무(池畑力)는 1949년 7월에 ‘고에이마루(光榮丸)’를 타고 독도에 밀항해 새똥(鳥糞)을 채취하였다.¹⁰⁾ 그러나 새똥을 비료로 쓸 수 없어서 실패였다. 또한 역시 어업 관계자였던 하마다 쇼타로(濱田正太郎)는 1951년 5월에 독도로 밀항해 한국어민들과 교류하였다.¹¹⁾ 하마다는 어민들에게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이니 빨리 섬에

7) 박병섭,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독도연구』 17호, 2014, 203~241쪽.

8) 제2절은 박병섭, 전계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을 전면적으로 개정함.

9) 박병섭, 『독도어업의 역사와 영유권 문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85~86쪽; 정병준, 전계서, 104쪽.

10) 박병섭, 전계서, 86쪽; 정병준, 전계서, 855쪽.

서 퇴거하라”고 억지주장을 하였다.

위와 같은 개인적인 독도 침입은 일본 국내법상으로도 위법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루어졌는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조인 직후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가 공연히 독도에 침입하고 이를 보도하였다. 기자는 독도가 새 지도에서 맥아더라인 안쪽, 즉 도항 허가구역 안에 있다는 것을 핑계로 돗토리현(鳥取縣) 사카이고등학교 연습선 ‘아사나기마루(朝風丸)’를 타고 1951년 11월 14일에 독도로 침입하였다.¹²⁾ 새 지도는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만든 제7155호 지도 「日本海(漁業用圖)」(1951.1.16)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 지도는 ‘어선 조업 허가구역’을 표시하는 곡선을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를 대원(大圓)으로 그리고 있다.¹³⁾ 이에 따르면 독도 동도로의 도항은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되지만, 이 지도는 일본 선박이 독도 주변 3해리 안에 접근할 수 없다는 SCAPIN 2046(1033을 개정)을 무시한 잘못된 지도이다. 훗날에 《아사히신문》 기자는 이 위법 도항에 대해 당국의 취조를 받았다고 한다.¹⁴⁾

〈표 1〉 광복~1953년 일본 선박의 독도 침입 일람표
(차는 일본 순시선의 “다케시마 순시” 차례)

년	월일	선박	차	거리	특기사항
47	4/?	?		상륙	사카이(境)의 일본인이 침입
49	7/	光榮丸		상륙	池畑力가 조분(鳥糞)을 채취
51	5/	제3이세마루		상륙	濱田正太郎, 한국어민과 교류
	11/14	朝風丸		상륙	朝日신문 취재. 독도는 무인
53	4/	오키		상륙	사진 촬영
	5/28	시마네마루		상륙	어민을 조사. 외무부 ‘제1차 침범’
	6/15	시마네마루		불명	神藤堆(심홍택해산) 발견

11) 박병섭, 전계서, 87쪽; 정병준, 전계서, 856~857쪽.

12) 박병섭, 전계서, 87~88쪽; 정병준, 전계서, 867쪽.

13) 박병섭, 전계서, 88쪽.

14) 「獨島를 竹島로 자稱」, 《동아일보》 1951.11.26.

6/23	구즈류, 노시로	1	500m	악천후로 상륙 실패
6/25	오키고교 鵬丸		상륙	毎日신문 어민을 취재, '제2차 침범'
6/26	미호마루		상륙	朝日신문 어민을 취재, '제3차 침범'
6/27	오키, 구즈류	1'	상륙	표주1을 세움. '제4차 침범'
7/2	나가라	2	상륙	청수의 용출 터를 발견
7/9	오키	3	100m	
7/12	헤쿠라	4	700m	헤쿠라를 총격. '제5차 침범'
8/3	헤쿠라	5	상륙	총격 현장 검증
8/7	헤쿠라	6	상륙	표주2를 세움
8/21	나가라	7	상륙	
8/31	헤쿠라	8	3해리	
9/3	오키	9	1해리	
9/17	시마네마루		상륙	표주2를 확인. 독도는 무인
9/23	다이센		상륙	표주2는 없음. 무인
10/6	헤쿠라, 나가라	10	상륙	표주3을 세움
10/13	헤쿠라	11	3해리	
10/17	나가라	12	300m	표주3은 없음. 외무성 조사단
10/21	시마네마루		상륙	朝日신문이 표석을 취재. 무인
10/23	나가라, 노시로	13	상륙	표주4를 세움. 표석과 깃대를 철거
11/15	나가라	14	200m	
12/6	헤쿠라	15	5해리	
12/19	헤쿠라	16	3해리	

* 이 표는 박병섭의 전계 논문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중 표 1 및 표 3을 개정, 통합함.

광복 후 처음으로 독도에 침입한 일본 관용선은 '8관본부' 순시선 오키(389톤)였다. 1953년 3월에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독도의 미군 폭격연습장 지정이 취소되자 4월경 오키는 '다케시마 초계'라 하여 독도에 상륙하

였다.¹⁵⁾ 이 ‘초계’의 목적은 폭격연습장 지정 취소를 발표하기 전에 독도 상황을 살피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폭격연습장 지정이 일본 관보에서 취소된 것은 미·일 합동위원회 결정에서 약 2개월 후인 5월 19일이었다. 이로서 일본 국내법상으로 독도 도항이 가능하게 됐으며, 28일에는 시마네현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63톤)가 독도에 상륙하였다. 시마네마루는 “쓰시마난류 해황조사”라 하여 독도로 침입하고 한국인 약 30명이 “본격적인 잠수기구”를 사용해 미역이나 전복을 채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¹⁶⁾ 외무부가 ‘제1차 침범’으로 이르는 사건이다. 또한 6월 15일에도 독도 해역에 침입하여 독도 동쪽 11해리에서 신도퇴(神藤堆, 심흥택해산)을 발견하였다.¹⁷⁾

시마네마루로부터 독도에서 한국어민들이 어로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외무성은 한국인의 독도 어업을 일본 영토권의 침해 및 ‘출입국관리령’과 어업 관계 법령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6월에 국가지방경찰본부, 보안청(현 방위성), 입국관리국, 해상보안청 등과 대책을 협의해 “다케시마 문제 대책 요강”을 결정하였다.¹⁸⁾ 이 요강은 외교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내용은 “한국인 어부들이 다케시마에 상륙한 안전을 상정해 이 경우에 취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 여러 조치를 실시할 때의 우선 순서 혹은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시했을 때에 상정되는 한국 측 반응과 이를 고려한 일본 측 대응책에 관해 정부 내에서 기획 책정된 체계적인 내용이 범용적인 형식으로 기재”되고 있다고 한다.¹⁹⁾

15) 広瀬肇, 「海上保安庁による竹島対応行動」, 『島嶼研究ジャーナル』4卷2号, 2015, 57~58쪽.

16) 박병섭, 전계서, 88~89쪽; 정병준, 전계서, 867쪽.

17) 「海の寶庫新発見」, 《山陰新報》 1953.6.18.

18) 外務省 「日韓関係文書」公開(2008.11.16), 文書番号 910,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その1, XV.竹島問題, 15-7~15-8쪽. 이 영인은 일본 시민단체가 공개한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f8.wx301.smilestart.ne.jp/gji-all/gji/01159/2006-00588-0910-01-03-IMG.xdw>

19) 小野啓一(外務省 北東아시아課長), 2013年4月26日付 東京高等裁判所宛「陳述書」, 52

이 “다케시마문제 대책 요강”에 따라 해상보안청은 “다케시마 주변 해역의 밀항·밀어 단속 강화”를 결정하고, 산인(山陰)해역을 관할하는 ‘제8 관구(管區)해상보안본부’(‘8관본부’로 약칭)에 단속의 실시를 명하였다.²⁰⁾ ‘8관본부’는 6월 23일 순시선을 독도로 침입시켰다. 침입사건의 개략은 ‘8관본부’가 해상보안청 본청에 제출한 보고서 「다케시마 주변 밀항 밀어 단속 실시 경과보고에 관하여」(「제1차 보고서」라고 약칭) 및 시마네현 직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²¹⁾

6월 23일 06시 30분 순시선 ‘구즈류’(232톤)와 ‘노시로’(243톤)가 다케시마에 도착해 임검반(臨檢班) 16명이 보트를 타고 동도에 상륙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강풍과 높은 파도 때문에 실패하고 2명이 부상을 입어 일단 회항하였다.

회항 후 신문사가 다케시마로 도항한다는 정보를 얻은 ‘8관본부’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순시선의 출항을 연기하였다. 다케시마로 향한 배는 오키(隱岐)고등학교 실습선 ‘오토리마루(鵬丸)’이며 《마이니치신문》 기자를 데리고 25일에 다케시마에 상륙하였다.²²⁾ 다음 날에는 《아사히신문》 기자가 미호마루(美保丸)를 타고 다케시마에 상륙하였다.²³⁾ 이런 배들이 귀항한 후 순시선 2척 ‘구즈류’, ‘오키’가 27일에 다케시마에 도착하였다.²⁴⁾ 순시선은 섬을 일주한 후 보안관, 경찰관, 시마네현 직원

쪽. 이 영인은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f8.wx301.smilestart.ne.jp/saiban/3ji/koso/ono-tinjyutusyo.pdf>

20) 海上保安庁, 『海上保安庁30年史』, 海上保安協会, 1979, 28~29쪽.

21) 박병섭, 전계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210~220쪽.

22) 오토리마루의 침입을 외무부의 전계서는 59쪽에서 “제2차 침범”으로 기록하였다. 박병섭, 전계서, 89~90쪽.

23) 미호마루의 침입을 외무부의 전계서는 59~60쪽에서 “제3차 침범”으로 간주하고 날짜를 27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기사 “竹島を見た, 本 社記者踏査行”(1953.6.28)는 26일의 일로 보도하였다. 한편 박병섭 전계서 92쪽 및 전계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235쪽에서 6월 25일의 오토리마루 침입사건을 외무부 “제2차” 및 “제3차 침입”과 동일시했으나 이는 다른 사건임이 판명됐으므로 이를 수정한다.

24) 외무부는 이 사건을 『독도문제개론』, 60쪽에서 “제4차 침범”으로 간주하고 날짜

들로 구성된 임검반 30명이 05시 55분 동도에 상륙하였다. 임검반은 섬에서 어로 중인 한국인 6명을 심문하였다. 심문의 내용은 ㉔주소·이름·연령·경력, ㉕한국인들이 섬에 온 경위, ㉖어업의 종류, 어획물의 종류 및 수량, ㉗조업의 상황, ㉘선박의 형태, ㉙어부들의 지식 정도나 특징, ㉚어업허가증이나 도민증의 유무, ㉛어민들의 영토의식과 섬에 온 동기, ㉜생활 상황과 소지품, ㉝신문·잡지의 유무 등이었다.

어민들은 모두가 울릉도 남면 도동의 주민들이다. 어민들의 이름과 나이는 정원준(34), 정복룡(35), 정석구(26), 이만룡(31), 정무출(30), 변학봉(39)이며, 모두가 “어업회 조합원”이라 한다. 연장자인 변학봉은 10년 전부터 매년 4월에서 10월에 독도로 출어하고 있었다. 일행 중 1명은 3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나머지 4명은 올해 처음으로 출어하였다. 어민들은 주로 미역을 따고, 그밖에 전복과 우뚝가사리 등을 채취하였다.

어민들에 대해 ‘8관본부’는 미리 준비한 조사용지 「다케시마 조사보고서 3」에 어민들의 회답을 개별로 기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어민들에게 이에 서명시켜 손도장도 받은 위에 개개인의 사진을 찍었다.

조사용지의 질문 항목은 ㉞한국 관현의 허가조치의 유무 및 그 내용, ㉟동도독도가 일본·한국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㊱1)한국 함정이 순시하고 있는지, 2)언제쯤부터인지, 3)형식·크기·척수, 4)한국 관현이 섬에 상륙했는지 등이었다. 일본정부가 궁금했던 것은 한국 관현이 독도어업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한국 함정이 독도를 어떻게 순시하고 있는지, 어민들의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 등이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한국 어민들의 회답은 ㊲허가증에 관해서는 6명 중 2명이 경찰서가 낸 출입항 허가증을 가지고 있으며, 허가증은 발동기선 선장이 가지고 있다고 회답하고, 나머지 4명은 관아의 허가는 없으며 4월경부터 제멋대로 왔다고 회답하였다. ㊳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에 대해서는 3명이 모른다고 회답하고, 나머지 3명은 생각한 적은 없다고 회답하였다. ㊴한국 함정에 대해서는 3명이 온 적은 없다고 회답하고, 나머지 3명이 온 것을 본 일은 없다고 회답하였다. 한국 관현의 상륙에 대해서는 전원이 모른다고 회답하였다.

순시선 임검반은 미군의 제1차 독도폭격사건에서 희생당한 어민들을 위령하는 ‘독도조난어민위령비’ 비문 내용을 베끼는 한편으로 시마네현이 미리 준비한 영토표주 2개 및 팻말 2개를 동도에 설치하였다. 팻말은 어업을 금지한다는 것과 섬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시마네현 수산과 관리는 어민들의 어업 실태 및 독도 어업의 가능성을 자세히 조사하고 기록하였다.²⁵⁾

어민들의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인데 변학봉 등은 10년 전부터 아무 문제없이 독도로 출어하고, 최근에는 울릉경찰서의 출입항 허가를 받고 독도로 출어하고 있으므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경상북도 지사가 세운 독도조난어민위령비가 서있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어민들에 대해 임검반은 “엄숙히 사무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고해 그들에 퇴거를 명하고, 모선이 도착하자마자 속히 퇴거하도록 권고하였다”고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정부는 한국 관현이 독도에 전혀 오지 않았음을 알고 또한 한국 어민들은 독도에 대해 거의 영유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 독도의 탈환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구체적인 탈환방도는 (A) 독도에 순시선이나 감시선을 자주 파견해 한국 어민의 미역채취 등을 막는다, (B) 독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독도에 어선을 출항시켜 어민에 어업을 시킨다는 것이었다.²⁶⁾ 이 중에서 일본정부는 당분간은 방도 (A)를 꾸준히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번 「1차 보고서」가 한국의 영토표주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는 것이 주목된다. 일찍이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이 1947년에 “조선 울릉도 남면 독도”라고 쓴 표주를 세웠으며²⁷⁾, 1952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는 “최근 울릉도로부터 어획[기] 경비원이 정부에 보내온 보고에 의하

25) 澤富造·井川信夫, 전계 「復命書」; 박병섭, 전계서 71~79쪽.

26)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1953.7.8)에서 외무대신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발언.

27) 정병준, 전계서, 138쪽.

면····[도중 생략] 위령비(慰靈碑)와 우리나라 영토임을 표시하는 남면도동(南面道洞)이라는 표주(標柱)도 그대로 서있다 한다”고 전하였다.²⁸⁾ 그러나 6월 25~26일에 독도를 취재한 《마이니치신문》 및 《아사히신문》 기자는 현지르포 기사에서 위령비를 소개하면서도 표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²⁹⁾ 이미 4월에 순시선 ‘오키’가 영토표주를 철거했다고 보인다.

‘8관본부’는 “1차 순시” 5일 후 어민들의 퇴거를 확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2차 다케시마 순시”라고 하여 순시선 ‘나가라’(241톤)를 독도로 파견하였다. ‘나가라’는 7월 2일에 독도에 상륙해 〈표 1〉과 같이 “청수의 용출터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들은 어민들이 없는 독도를 골고루 답사하여 서도의 물골을 발견한 듯하다. 외무부는 이 침범을 7월 1일로 기록하고 있다.³⁰⁾ 일주일 후 ‘8관본부’는 〈표 1〉에 의하면 7월 9일에 순시선 ‘오키’가 “제3차 다케시마 순시”를 실시하였다. ‘오키’는 독도에 100m까지 접근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 시기 ‘8관본부’는 마음대로 독도에서 활동하였다.

2) ‘헤쿠라’ 총격사건

일본 순시선의 행패가 보도되자 한국에서는 “일제 침략의 재판(再版)이라고 여론이 비등”하였다. 정부는 해군 함정의 파견을 결정하고,³¹⁾ 울릉경찰서원이 7월 3일에 일본의 영토표주를 철거하였다.³²⁾ 한국국회에서는 7월 8일에 “독도 침해사건에 관한 대 정부건의”를 결의했으며, 경상북도의회는 7월 10일에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

28) 「一大 水産場化한 獨島」, 《동아일보》 1952.7.10.

29) 『『竹島』現地レポート』 1, 2, 《毎日新聞》 島根地方版, 1953.6.27, 同28; 「韓國人六名が住む」,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3.6.28.

30) 외무부, 전계서, 71쪽.

31) 「韓國 竹島に艦艇派遣」,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3.7.3.

32) 외무부, 전계서, 67쪽.

하였다.³³⁾

한국 함정이 독도로 파견됐다는 정보가 일본에 전해지자 순시선 ‘헤쿠라’(386톤)가 독도로 급행하였다. 일본이 이르는 “제4차 다케시마 순시”, 외무부가 이르는 “제5차 침범”이며 12일에 ‘헤쿠라’를 총격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관한 자료로서 ‘8관본부’는 본부장이 해상보안청 경비구난부장에 보낸 7월 13일자 「제4차 다케시마 주변 특별단속 실시 보고에 관하여」(「제4차 보고서」로 약칭)를 정보공개하였다.³⁴⁾ 이 자료 및 외무부 『독도 문제 개론』에 의하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8관본부장’은 한국 함정이 독도 방면에 출동했다는 정보를 얻어, 사카이(境)해상보안부장가시와 히로쓰구 柏博次에 “제4차 다케시마 주변 특별단속”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전보로 명하였다. 지휘관은 사카이해상보안부장, 사용하는 함정은 ‘헤쿠라’, 조사사항은 “제1차 단속”에서 실시한 사항에 관해 상황을 확인한다, 실시 예정은 7월 11일 20시 00분에 사카이를 출발하고 다음 날 오전에 현지조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가시와는 다케시마 상륙을 위해 임검반 12명을 조직했는데 그 중 6명을 무장시켰다. ‘헤쿠라’는 12일 05시 30분에 섬에 도착해, 먼저 동도에 세운 영토표주가 없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에 ‘헤쿠라’는 섬을 왼쪽으로 보고 일주하고, 서도 서단을 돌았을 때 남서 해안에 흰색 어선(약 10톤) 2척과 청색 어선(약 5톤) 1척이 모두 태극기를 달고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승무원들이 많이 있는 듯하다. 05시 50분에 그들에 조심해 약 700m까지 다가가 정지하고 섬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섬에는 미군 노무자 옷차림 비슷한 녹색 옷과 모자를 착용한 경비원 같은 자가 수명 있었다.

06시 10분 상륙용 보트를 내리기 시작하여, 임검반에 출동 준비를 명하였다. 마침 흰색 어선 1척이 다가와 06시 15분에 ‘헤쿠라’ 옆에 뗏다. 이는 영호(榮號), 약 10톤이며 총기는 없고 잠수 펌프와 잠수복을 신고 있었다. 이 어선에서 3명이 ‘헤쿠라’에 올라와 선장실에서 면담하였다.

33) 외무부, 전계서, 67~69쪽.

34) 박병섭, 전계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220~225쪽.

한국 측은 경상북도 경찰국 경사 최헌식(崔憲植)과 울릉중학교 교사 2명이다. 교사들은 독도 조사를 위해 섬에 온 것이며 그 중 기(奇) 교사가 통역을 맡았다. 회답에서 가시와는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에 한국인들이 온 것은 불법침입이므로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측은 “이 섬은 독도라고 칭하며 약 800년 전 신라시대부터 한국영토이며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독도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속도의 유래를 설명하였다. 그 위에 일본지도에 기재된 영토 구획선은 오키섬을 일본 영토로 넣고 竹島독도는 제외하고 있으며, 지금 와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뜻밖의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1947년 미국무부는 竹島는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 “竹島독도는 울릉도민 1만 7천명의 생명선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쌍방의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회답은 중단되었다. 한국 측은 일단 순시선을 내리고 어선 대성호(大成號)에 대기 중인 사찰주임(주사) 김진성(金振聲)과 상의하였다. 대성호에는 카빈총 1자루, 자동소총 1자루, 경기 1자루가 있었다. 상의가 끝나고 김진성과 조금 전에 배에 탔던 3명이 순시선에 올라와 선장실에서 두 번째 회답을 가졌다. 주사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울릉도 경비원으로서 본도를 지키고 있다. 영해 내에 들어온 타국의 배는 나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단 울릉도까지 와주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이 우리들을 일본에 납치한다든지, 둘 중 하나다”라고 주장하였다.

사태가 험악하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가시와는 “본선은 초계를 속행할 것이니 하선하십시오”라고 말하자, 한국인들은 「제4차 보고서」에 따르면 “마지막에 간신히 배를 떠났다”고 한다. 그러나 외무부 『독도문제개론』은 사찰주임 김진성이 “아방은 한층 강경하게 [울릉도로] 동행을 요구하였던바 일본인 책임자라는 자는 선장에게 출발을 명하고 아방에 대하여 그러면 가겠다(소레자 이끼마스)하기에 아방은 전원 발동기선에 이승”했다고 기록했으며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

어쨌든 경찰관들이 내린 후에 ‘헤쿠라’는 경찰관들을 야유하듯이 섬을 일주하였다. 이에 분격한 경찰관들은 08시 25분 서도에 다시 온 ‘헤쿠라’에 발포하였다. 서도에는 최헌식과 같은 녹색 옷을 입은 자들, 즉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발포하였다. 수습 발의 탄환 중 한 발이 헤쿠라 왼쪽 뱃전에, 또 한 발이 왼쪽 뱃전에 있는 2호 보트 뒤쪽

벋전을 관통해 대빗(davit) 로프에 멈추고 있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08시 35분 ‘헤쿠라’는 사카이를 향해 귀항하였다.

사건 전날에 울릉경찰서 순라반은 어선 ‘대성호’를 타고 울릉도를 출발했는데, 본래 이런 해상경비는 1953년 12월 말에 해양경찰대가 창설되기까지는 해군의 임무였다. 그러나 당시는 한국전쟁 중이며 해군은 전쟁 수행에 여념이 없는데다가 평화선 혹은 ‘클라크라인’을 넘어 제주도나 흑산도 앞바다 등에 침입하는 일본 어선의 대처 등으로 바빴다.³⁵⁾ 그래도 해군은 독도문제를 간과하지 못해 내무부에 독도의 경비를 의뢰한 결과 울릉경찰서가 순라반을 조직해 출동한 것 같다. 사건 후 해군 참모총장 박옥규는 7월 21일에 일본 측의 독도 침입에 대비해 해군은 “계속해 동도독도 주변을 순항하고 경계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³⁶⁾

일본 순시선의 피격사건은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8관본부’는 총격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순시선을 독도로 파견하였다. ‘8관본부’는 순시결과 자료로서 ‘8관본부장’이 해상보안청 경비구난부장에 보낸 「제5차 다케시마 주변해역 특별단속 보고에 관하여」를 정보공개하였다.³⁷⁾ 이에 따르면 8월 3일 ‘헤쿠라’는 독도에 도착한 후 무장한 임검반 11명이 보트를 타고 08시 15분에 서도에 상륙해 소총탄 2발, 약협 51발, 기타 부품을 수집하였다. 또한 철거된 일본의 영토표주의 흔적을 확인하였다. 보고서는 한국인이 최근에 섬에 온 흔적이 없고 또한 미역 채취 등 어기도 끝났으므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영토표주를 동·서 양도에 세울 수 있다는 소견도 쓰고 있다.

35) 『해양경찰 60년사』, 해양경찰청, 2013, 50~52쪽.

36) 「韓国, 竹島を警戒」, 《読売新聞》 1953.7.22.

37) 박병섭, 전계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228~230쪽.

3) 일본의 영토표주

‘8관본부장’의 영토표주에 관한 소견은 4일 후에 제안대로 실행되었다. ‘8관본부’는 “제6차 다케시마 순시”라고 하여 8월 7일에 순시선 ‘헤쿠라’를 독도로 파견해 두 번째 영토표주를 동·서 양도에 세웠다. 이 표주는 일본의 제7차(8.21), 제8차(8.31), 제9차(9.3) ‘다케시마 순시’에서 확인됐을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외무부에 송부(8.28)한 해군함정의 독도 조사보고에 “일본이 세운 표목 사진 5매, 일본선박 헤쿠라호 사진 3매, 위령비 등 독도 尙畧원 문대로 3매”가 첨부됐다고 한다.³⁸⁾ 이 표목이 일본의 두 번째 영토표주라고 생각된다. 해군함정이 ‘헤쿠라’와 표목의 사진을 같은 날에 찍었다면 그 날은 <표 1>에 비추어 8월 7일로 생각되며, 바로 일본이 두 번째 영토표주를 세웠던 날이다. 그런데 해군함정은 그날에 일본의 표목을 철거하지 않았으며, 이 표목은 9월 17일 아침에 시마네현 수산시험선 ‘시마네마루’에 의해 이상이 없었음이 확인됐다.³⁹⁾ 마침 이 날에 울릉경찰서원이 독도로 가서 동·서 양도에 설치된 일본의 표주 두 개를 제거했다고 한다.⁴⁰⁾ 영토표주가 사라진 것은 일본에서는 돗토리현 수산시험선 ‘다이센’에 의해 9월 23일에 확인되었다.⁴¹⁾ 영토표주가 철거된 것을 연락받은 해상보안청은 <표 1>에 의하면 10월 6일에 순시선 ‘헤쿠라’와 ‘나라가’가 “제10차 다케시마 순시”라고 하여 독도에 상륙하고 세 번째 영토표주를 설치하였다.⁴²⁾

일주일 후 해상보안청은 부산방송에서 독도 조사를 위해 한국 함정이 지질학자 20명을 태우고 독도로 향했다고 보도한 정보를 얻었다.⁴³⁾ 이에 대해 ‘8관본부’는 순시선 ‘헤쿠라’ 및 ‘나라가’를 독도로 파견하였다. “제

38) 정병준, 전계 논문, 400쪽.

39) 「韓國人の姿なし」,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3.9.20.

40) 정병준, 전계서, 905쪽.

41) 「竹島に三度目の標柱」, 《山陰新報》 1953.10.8; 「三度目の標柱建つ」,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3.10.7.

42) 상동.

43) 田村清三郎, 전계서, 123쪽.

11차 다케시마 순시"다. 그러나 13일 아침 독도 주변에 한국 함정은 보이지 않고, 한국인이 상륙한 기척도 없었으며 일본의 영토표주에도 이상이 없었다. 이 날은 높은 파도로 상륙은 불가능하였다. 독도에는 '나가라'만이 남았고 '헤쿠라'는 회항하였다. 그런데 오후에 한국 해군 함정 907호가 독도에 도착하였다. 양국의 함정은 서로 신호로 상대방에 퇴거를 요구해 대치하였다. 그러나 파도가 높았기 때문에 양국의 함정은 결국은 회항하였다. 파도가 가라앉은 15일에 한국산악회는 독도에 상륙하여 일본의 영토표주를 제거하고, 동도 남쪽 자갈 해안에 "독도 獨島 LIANCOURT"라고 새긴 표석을 설치하였다.⁴⁴⁾

일본의 영토표주가 철거된 것은 17일 순시선 '나가라'의 "제12차 다케시마 순시"에 의해 확인되었다. '나가라'에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등 외무성 최초의 조사단과 국회의원이며 전 육군참모 쓰지 마사노부(辻政信) 등이 타고 있었다. 조사단은 쓰지가 탔던 것이나 독도에 한국인이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 상륙하지 않고 독도에 300m까지 접근해 일본의 영토표주가 철거된 것이나 동도에 한국인이 세운 깃대 2개, 서도 근처 소옥에 측량 폴 1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⁴⁵⁾

사건 후 해군 참모총장은 21일 "만약 일본이 竹島(독도)를 점령하려고 무력에 의지한다면 한국 해군은 竹島 방위를 위해 언제든지 무력으로 응할 것이다. 竹島(독도) 주변의 방위 순찰은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해,⁴⁶⁾ 거듭된 일본 순시선의 침입에서 독도를 지키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그러나 마침 그 날에 시마네현 '시마네마루'가 독도에 침입하고, 이에 타고 있었던 《아사히신문》 기자가 상륙해 한국산악회가 세운 앞의 표석을 확인해 보도하였다.⁴⁷⁾ 또한 2일 후에는 순시선 '나가라'와 '노시로'도 확인하였

44) 「竹島に韓国側の標石」,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3.10.23.

45) 「竹島に韓国の旗」,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3.10.18.

46) 「竹島防衛を強化」,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3.10.22.

47) 「竹島に韓国側の標石」,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3.10.23.

다. 두 순시선은 23일 “제13차 다케시마 순시”라고 하여 독도에 상륙하고, <표 1>과 같이 한국 측 표석 및 깃대를 철거해 일본의 네 번째 영토표주를 세웠다.

표주를 중요시하는 ‘8관본부’는 독도 도항이 힘든 겨울철에도 매달 1~2번씩 “다케시마 순시”를 계속해 표주에 이상이 없는 것 등을 확인하였다. 이 영토표주는 1954년 5월 18일에 철거될 때까지 실로 반년 이상 그대로 독도에 서있었다. 이런 영토표주의 경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일본의 영토표주의 경위

차	설립 일자		철거 일자	존속 기간
1	6/27	(제1차 순시)	7/3	6일
2	8/7	(제6차 순시)	9/17	41일
3	10/6	(제10차 순시)	10/15	9일
4	10/23	(제13차 순시)	1954.5.18	207일

* 이 표는 박병섭의 전계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표 4를 개정함.

일본의 독도 침탈의 상징인 영토표주는 1953년 6월 27일부터 다음해 5월 18일까지 325일 동안에 실로 263일, 81% 기간 독도에 서있었다. 이처럼 한국전쟁의 영향이 컸던 1953년 후반기부터 1954년 전반기에 걸쳐 한국은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을 충분히 막지 못했으며, 독도 수호 활동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영토표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국은 일본의 독도 침탈을 약 80% 허용한 셈이 된다.

3. 1954년 독도 공방전

1954년은 신년 초부터 일본의 독도 침탈 공세가 시작하였다. ‘8관본부’는 <표 3>과 같이 매달 1-2회 독도로 순시선을 파견하여,⁴⁸⁾ 일본의 4번째

영토표주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표 3〉 1954년 일본 선박의 독도 침입 일람표

차	월일	선박	거리	특기사항
17	1/7	나가라	200m	
18	1/16	오키	상륙	
19	1/27	헤쿠라, 나가라	200m	
20	2/28	헤쿠라	3해리	
	3/23	시마네마루	1km	독도는 무인
21	3/28	헤쿠라	3해리	
22	4/24	헤쿠라	3해리	
23	5/3	오키 외 5척	상륙	일본 어민이 미역 채취
24	5/23	쓰가루	1km	일본 표주는 철거당함. 한국 어민 조업 중
	5/29	다이센	상륙	日本海신문이 상이군인, 고교생 등을 취재
25	6/16	쓰가루	1km	한국 어민이 발동기선 2척, 전마선 2척으로 조업 중
26	7/8	헤쿠라	3해리	발동기선, 전마선 각 1척 계류
27	7/28	구즈류	보트로 접근	서도에 천막을 치고 한국 경비원 6명이 작업 중. 서도 북쪽 바위에 “7月25日大韓民國國民議 ··· 火星号海警隊”라는 글이 있음
28	8/23	오키	700m	오키를 총격. 발사 탄환 수 약 400발. 오키 1탄 피격. 동도 돌단에 높이 약 6m의 등대 설치. 태극기 게양
29	10/2	오키, 나가라	1.5 해리	동도 정상에 높이 약10m의 무선용 기둥 2개 신설. 동도 돌단에 대포 설치. 경비원이 7명 있으며 포구를 순시선에 돌렸음
30	11/21	오키, 헤쿠라	3해리	산막 같은 건물 2채 있음. 헤쿠라에서 약 1해리에 포탄 5발이 낙하. 무선용 기둥 근처에 14~5명 있음

* 이 표는 외무성 전계 문서번호 910 등을 바탕으로 작성함.

48) 外務省, 前掲, 文書番号910, 15~17·15~23쪽.

1) 일본인의 독도 어업

일찍이 시마네현 어민들의 독도 어업은 1930년대에 강치 잡이가 있었으며 매년 강치 수십 마리를 잡았다. 그러나 일본이 2차 대전에 참전하자 1941년을 마지막으로 어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광복 후는 맥아더 라인 등에 인해 어업이 금지되었다. 일본정부는 앞에 쓴 것처럼 독도 탈환 방도 “(B) 독도에 어선을 출항시켜 어민에 어업을 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1954년 5월에 실시하였다. 이 개요는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⁴⁹⁾

시마네현은 수산상공부차장 시게타(重田)를 단장으로 하고 독도 어업 조사의 실적이 있는 수산과 기사 이가와(井川)를 비롯해 오키 구미무라(久見村) 어업협동조합장 와키다 사토시(脇田敏) 외 어민 10명으로 구성된 출어단(出漁団)을 비밀리에 편성하였다.

5월 1일 04시 50분 출어단은 시마네현 단속선 시마가제마루(島風丸, 53톤)를 타고 사카이(境)항을 비밀리에 출항하였다. 이때에 그들은 한국 측 무선통신을 방수해 “민경(民警) 20명을 태운 포함이 출동한다”는 정보를 얻었지만 출항을 강행하였다. 시마가제마루는 10시 30분에 오키 후쿠우라(福浦)항에 도착해 ‘8관본부’ 순시선 5척과 합류하였다. 순시선은 쓰가루(811톤), 오키, 헤쿠라, 나가라, 구즈류였다. 이 날은 파도가 높았기 때문에 출항을 2일 연기하고 독도에 3일 10시 30분에 도착하였다. 섬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독도 동북쪽 수심 20m 연안까지 다가가 전마선을 타고 11시쯤에 어로를 시작하였다. 처음에 미역을 따고 약 1시간 30분 동안에 약 7,500kg 채취하였다. 다음에 서도 북쪽으로 가서 전복과 소라의 번식 상황을 살펴보았다. 한국 어민이 출어한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은 적으며 약 110kg 채취했을 뿐이었다. 일행은 작업을 끝나고 14시 35분에 회항하였다.

이 어업에서 오키 어민들은 기대한 전복은 양이 적으며 가격이 싼 미역

49) 「アシカ遊ぶ孤島 竹島」, 《山陰新報》 1954.5.7.

을 대량으로 채취했을 뿐이었다. 이가와는 1년 전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독도에서의 채취 어업에는 기대할 수 없다고 예견했는데⁵⁰⁾ 그대로였다. 강치는 약 20~30마리가 떼를 지어 있을 정도이며,⁵¹⁾ 어업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어민들은 독도가 매력적이지 않은 섬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결국 이번 채취어업이 광복 후 일본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채취어업이 되었다.

한편으로 순시선은 독도 동도 정상에 세워진 영토표주가 그대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⁵²⁾ 그런데 한국 측은 이런 일본인들의 어업이나 일본정부의 독도 탈환 방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

2) 상이군인들의 어업과 독도자위대

울릉도민들은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도민대회를 열고 자위책을 모색하였다.⁵³⁾ 1954년 4월 25일 “도민을 대표하는 관공서 등 각 기관장과 사회단체 대표 각 면의회의원 지방유지 등 다수가 참집한 가운데 국민회 울릉도지부 주최로 도민결기대회를 열어 독도 방위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울릉도 내의 청장년으로서 독도자위대를 결성하기로 하였다”고 한다.⁵⁴⁾ 구체적인 수호 방안은 독도에 등대와 감시초소를 설치한 다음 청장년을 소집해 등대와 감시초소에 근무시키고 보도와 경비선에 각각 상시 연락한다는 것이었다.

도민들의 결의를 국무총리는 훌륭한 것이라고 칭찬하는 한편 내무부장관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⁵⁾ 실제 지원인데 독도의 여러 악조

50) 澤富造·井川信夫 前掲「復命書(1953.6.28)」; 박병섭, 전계서, 72쪽.

51) 「竹島に出漁を敢行」, 《日本海新聞》 1954.5.7.

52) 《山陰新報》(1954.3.25)에 의하면 ‘시마네마루’는 3월 23일에 일본의 영토표주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오보이며, 5월 7일자 《山陰新報》는 “동도 정상에 세워진 일본 영토표주는 보인다”라고 전하였다.

53) 「독도를 수호하자」, 《동아일보》 1954.5.2; 「竹島へ民間防衛隊」,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3.5.3.

54) 「우리영토를 수호」, 《조선일보》 1954.5.3.

건 때문에 “울릉도민들의 열성에 만족할만한 협조를 보내기는 곤란한 처지”였으나,⁵⁶⁾ 울릉경찰서는 독도를 지키겠다는 상이군인들이 독도에서의 미역채취권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상이군인들은 3년간 미역채취권을 획득하고,⁵⁷⁾ 1954년 5월 초순부터 독도에서 어업을 시작하였다. 상이군인들의 어업은 돛토리 수산시험선 ‘다이센’에 의해 목격되었다. ‘다이센’은 독도 주변에서 시험적인 콩치 봉수망(棒受網)어업을 했는데, 이 배에 타고 독도를 취재한 《니혼카이신문》 기자는 대략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⁵⁸⁾

5월 30일 ‘다이센’은 콩치를 쫓아 다케시마에 500m까지 접근하여, 한국 측 총격을 경계하면서 섬을 일주하였다. 섬 남쪽에서 미역채취 전마선 2척을 발견, 서도 서쪽에서 해녀 약 30명과 7-8톤짜리 동력선을 확인하였다. 서도 북쪽에는 암석이 무너진 해안가에 흰 페인트로 한국기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아마 “大韓民國”이라는 글자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동도로 가서 서남쪽에 미역 건조장이나 드럼통, 돌 혹은 시멘트로 된 표주를 보았다. 후에 표주는 “한국 영토의 표시”임을 알았다.

‘다이센’은 다시 섬을 일주하면서 서도 북쪽에서 정선하자 (사진 1)처럼 25세 가량의 청년 6명이 웃으면서 전마선으로 다가왔다. 동도에서도 전마선이 1척 다가왔다. 기자는 그들에게 부탁하여 전마선을 타고 섬에 상륙하였다. 그러자 쉬고 있었던 해녀들이 일제히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해녀들은 전복, 소라를 채취하고 있었다. 다른 여인들은 해안에서

55) 「홀륭한 조직이다」, 《조선일보》 1954.5.13.

56) 「이번엔 암석에 조각」, 《조선일보》 1954.5.13.

57) 주강현, 『울릉도 개척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176쪽; 「독도 의용수비대장, 고 홍순칠 “육필 수기”」, 『신동아』 1996년 4월, 652쪽; 박병섭, 전개서, 81쪽.

58) 「日本海の焦点 竹島上陸記」, 《日本海新聞》 1954.6.3. 외무부 『독도문제개론』은 84쪽에서 5월 28일에 약 450톤 크기 일본 배가 독도로 침입해 “승조원 중 1명이 상륙해 한국의 영토 표식을 촬영하고 약 10분 후에 이도(離島)하였다”고 썼는데 이 배는 ‘다이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날짜는 30일이 옳을 것이다.

작은 조개를 채취하고 있었다. 사내들은 길이 4m 정도의 대나무 끝에 낚을 달고 바다 속의 미역을 따고 있었다. 미역은 적갈색이며 상품품이 아니다. 그런 적갈색 미역이라도 한국에서는 10관(37.5kg)으로 1만 엔이라고 한다. 쌀은 풍부하며 5두(75kg)로 3,500엔이라고 하니 좋은 장사가 될 것 같다.

전마선의 청년들 6명은 대다수가 일본어를 쓸 수 있었다. 그 중 1명은 군모를 쓴 상이군인이며 전공이 있었는지 약수(略綬)를 띠고 있었다. 그들은 섬에 온 경위를 “한국군에 소집되어 전쟁터로 갔다. 부상해 돌아왔지만 먹을 수 없으므로 상이군인회의 도움으로 미역을 채취하러 울릉도에서 왔다. 이미 20여일이 된다. 섬에는 발동기선 1척과 작은 배 4척이 있다. 사내가 23명, 여인이 28명 있다. 여인 중 제주도에서 온 자가 약 20명”이라고 말하였다. 사내들 중에는 울릉수산고교 학생도 아르바이트로 고용되고 있었다. 어민들은 동굴 앞 자갈 해안에서 생활하며 취사는 바위 그늘에서 한다.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섬이기 때문에 경비선이 보급해도 장작이 모자란 것 같다. 경비선은 5일마다 온다고 한다. “마침 3일 전에 왔는데 경비선이 오면 무서우니 경비선이 있을 때는 오지 않을 것이 좋다. 위험하다”라고 말하였다. 기자는 이 말을 그들의 시위가 아니라 친절로 받았다. 한편 특별히 ‘다이센’ 안을 견학한 수산고교생은 사카이(境)로 데려가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지만 어쩔 수 없다. 예전에 수산고교 교사였던 선장은 고등학생을 달래고 어민들에 간장을 나누어주고 헤어졌다.

‘다이센’의 독도 담방 기사를 일본 《아사히신문》도 간단히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수산고교생은 45명, 상이군인들은 수 명이라고 한다.⁵⁹⁾ 상이군인들은 자기들을 ‘독도자위대’ 혹은 ‘민경’이라고는 칭하지 않았다. 앞의 시마가제마루가 사카이를 출항할 때 “민경 20명을 태운 포함이 출동한다”는 정보를 얻었는데, 이 “민경 20명”은 상이군인, 어민들을 가리키고, “포함”은 그들을 태운 배를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이군인들은 5월 중에는 《니혼카이신문》에 따르면 미역채취에 바빴으며 독도 경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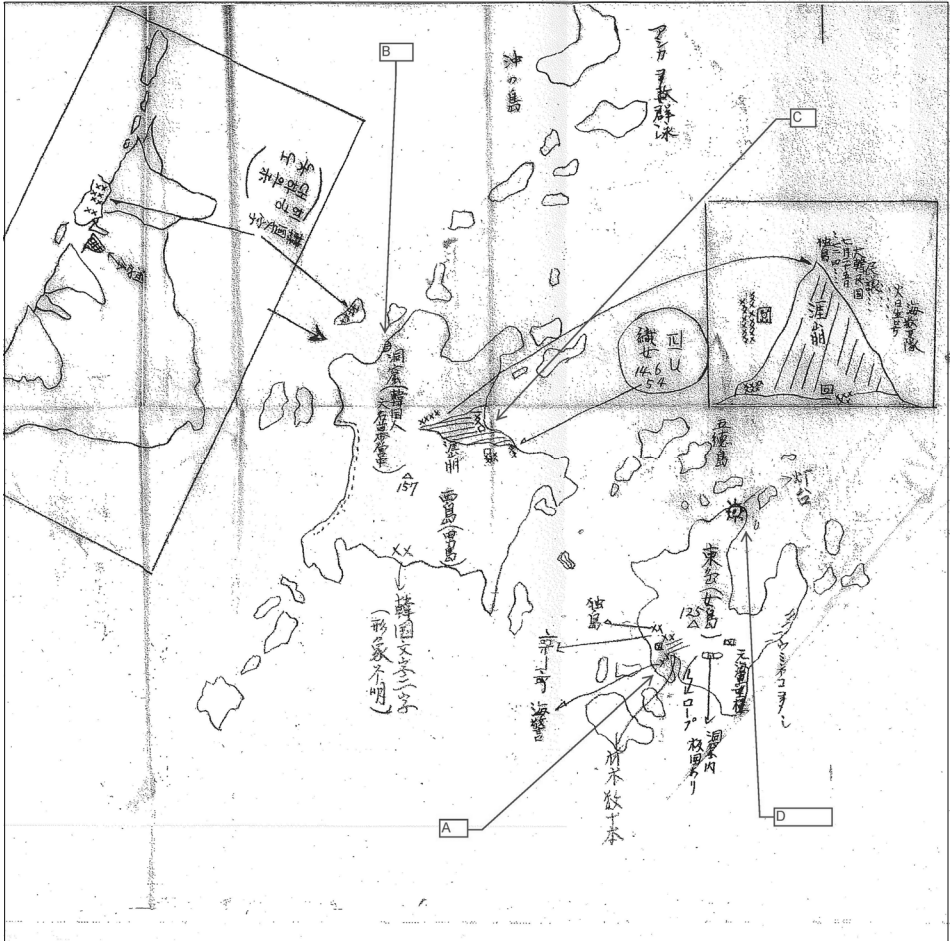
59) 「竹島に韓国海女ら六十人」,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6.1.



〈사진 1〉 전마선으로 ‘다이센’에 다가가는 어민들 6명.
오른쪽에서 둘째 사람이 상이군인 (출처:《日本海新聞》1954.6.3)

하지 않았다. 또한 어민들은 ‘경비선’이 5일마다 독도로 온다고 말했는데, 해양경찰대의 경비선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5월 18일에 처음으로 독도로 갔으며, 다음은 6월 14일이었다. 실제로 5일마다 독도로 왔던 배가 있다면 이는 어민들에게 생활물자를 보내고 수확물을 가져가는 운반선이었다고 생각된다.

위 보도에서 동도에 “돌 혹은 시멘트로 된 표주”가 있고 “표주는 한국 영토의 표시”임을 알았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이 표주는 ‘독도조난어민위령비’와 다르다. 위령비는 한자로 ‘獨島遭難漁民慰靈碑’라고 쓰고 있으므로 동도에 상륙한 기자는 쉽게 영토표주와 구별할 수 있다. 한국의 영토 표주인데 일찍이 한국산악회가 세운 “독도 獨島 LIANCOURT”라는 표석이 일본에 의해 철거된 직후에 내무부장관은 관계 부처에 파괴된 한국령 표지를 독도에 재건하라고 1953년 10월 29일에 지시하였다.⁶⁰⁾ 표지 설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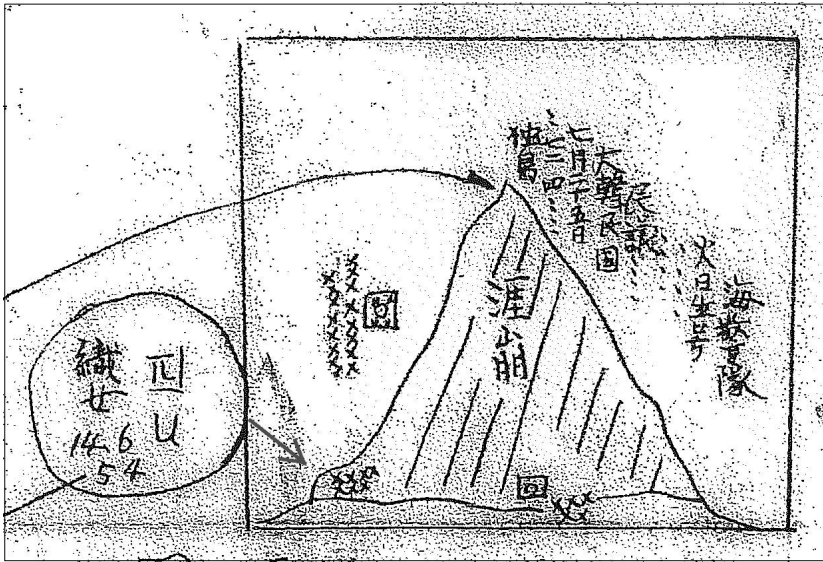


〈그림 1〉 '8관본부'가 제27차 및 28차 '다케시마 순시'를 바탕으로 작성한 표식, 시설 등 조사도(기호 A, B, C, D는 필자가 기입함).

출처: '8관본부' 보고서 「제28차 다케시마 특별 단속 실시 경과에 관하여」

경상북도가 담당하고 표문(標文)은 한글로 표기하였다. 설치공사는 약천 후 등 여러 사정 때문에 몇 번이나 연기됐는데,⁶¹⁾ 해양경찰대가 처음으로

60) 정병준, 전개 논문, 《경향신문》 1953.10.30, 436쪽.



〈그림 2〉 서도 동북쪽 벼랑 확대도

출동한 1954년 5월 18일에 표지를 세웠다고 생각된다. 같은 날에 해양경찰대는 〈그림 1〉 C지점 및 확대도 〈그림 2〉과 같이 서도 벼랑에 태극기를 그렸는데 이것들이 《니혼카이신문》 기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외무부는 ‘다이센’ 침입사건에 대해 일본정부에 각서를 보내 항의하였다. 내무부는 이 사건을 28일의 일로 기록하고 “5월 28일 15시경 독도 근해에 일본국기를 게양한 일본어선(140톤급 무전장치, 선원 13명 탑승) 1척이 침입하여 독도를 감시한 후 선원 1명이 상륙하여 아국 영토 표지가 된 4, 5군데를 촬영한 후 어로작업 차 출동한 아국 어부 河재천 1명에 「히카리(光) 일본제 담배 2갑 외 장油원문대료 약간을 제공한 후 동일 15시 40분경 퇴거”했다고 발표하였다.⁶²⁾

61) 정병준, 전개 논문, 437-438쪽.

62) 「一聯의 獨島事件 內務部서 經緯發表」, 《동아일보》 1954.6.11.

상이군인들의 동향인데 그들은 다음 달에 독도자위대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들 15명은 1954년 6월 19일 오후 8시에 6마력의 소형선을 타고 울릉도를 출발, 20일 이른 아침에 독도에 도착해 활동을 개시했다고 한다.⁶³⁾ 배는 “이필령 씨 소유 6마력짜리 3톤 어선 삼사호”라고 한다.⁶⁴⁾

독도자위대는 훗날에 이름을 독도의용수비대라고 바꾸었는데 그들의 애국적이며 희생적인 활동이 정부에 인정되어 1966년 4월에 대장 홍순철은 5등 근무공로훈장, 대원 10명은 방위포장을 수여받았다.⁶⁵⁾ 홍순철의 수상 이유는 “투철한 애국심과 향토애로서 1954년 6월, 30여명의 대원을 모집하여 막대한 사재를 기울여 독도 의용수비대를 조직하고 경비에 심혈을 경주”했다는 것이었다.⁶⁶⁾

정부는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개시시기를 1954년 6월로 확정했는데, 훗날에 수비대가 독도에 주둔한 시점을 1953년 4월로 보는 견해가 나타났다.⁶⁷⁾ 그러나 홍순철의 묘비에도 주둔 시점이 1954년 6월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⁶⁸⁾ 이 이전에 독도에 주둔한 확증을 찾을 수 없다.

3) 해양경찰대의 출동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되고 한국은 평시체제로 되돌아갔다. 12월 23일에 해양경찰대가 창설돼 독도 경비를 맡게 되었다. 이즈음 일본의 순시선은 <표 1> 및 <표 2>와 같이 11월에 1번, 12월에

63) 「독도를 지킨 사람들」, 《경향신문》 1966.4.27.

64) 「독도 경비 25시 (2)」, 《영남일보》 1977.3.5.

65) 「독도 지킨 숨은 미담 민간인 11명에 포상」, 《경향신문》 1966.4.26.

66) 김호동, 「독도의용수비대 정신 계승을 위한 제안」,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3』, 영남대학교, 2011, 168쪽.

67) 김윤배·김점구·한성민,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시기에 대한 재검토」, 『내일을 여는 역사』 43호, 2011, 172~174쪽.

68) 위의 논문, 174쪽.

2번, 1954년 1월에 3번, 2~4월에 각 1번씩 독도로 침입해 때로는 상륙하고 일본의 영토표주 등을 살펴보았다.

이런 순시선의 활동이 목격됐는지, 1954년 4월 2일 한국 경찰 당국은 “일본 순시선이 竹島[독도] 근처 어장에서 한국 어선을 내쫓는다는 소식이 있으므로 한국은 일본 경비선을 내쫓기 위해 즉시 竹島[독도]에 포함을 파견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고 일본에서 보도되었다.⁶⁹⁾ 실제로 독도에 파견된 함정은 해양경찰대 경비선이었다. 경비선 ‘칠성호’는 석공 3명을 데리고 5월 18일에 독도에 도착하였다. 첫째 순찰이다. 해양경찰대는 일본의 영토표주를 철거하고, 서도 석산봉(〈그림1〉 C지점 및 〈그림2〉)에 태극기와 “大韓民國慶北鬱陵郡南面獨島”라는 글자를 새겼다.⁷⁰⁾ 이는 앞의 《니혼카이신문》기자 혹은 일본 순시선, 한국 민의원의원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칠성호가 출동한 지 1주일 후에 국적 불명 선박이나 항공기가 잇따라 독도로 침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⁷¹⁾ 예를 들면 《동아일보》는 5월 22일에는 국적 불명 약 1천 톤급 무장 선박이 독도에 출현해 어민들의 작업을 정찰했으며, 이들 후에는 정체불명 비행기 1대가 독도 상공에 나타나다가 표식에 기총사격을 가하고 일본 시모노세키(下關)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전하였다. 《조선일보》는 기총사격에 관한 사설에서 미군 폭격사건을 방불케 하는 일본의 “잔인한 비인간적 만행”을 맹렬히 비난하고 어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다.⁷²⁾ 《동아일보》 기사에 있는 선박은 일본 대형 순시선 ‘쓰가루’이며, 22일은 〈표 3〉에 의하면 23일의 잘못이

69) 「韓國, 竹島へ砲艦を派遣」,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4.3.

70) 「일련의 독도사건 내부부서 경위 발표」, 《동아일보》 1954.6.11; 「독도에 조사대 급파」, 《조선일보》 1954.6.12.

71) 「독도에 정체불명기 영토표식 향해 기총소사」, 《동아일보》 1954.6.2; 「日艦 독도에 기총소사」, 《조선일보》 1954.6.2 및 「日機 소행이 확실」, 1954.6.5; 「国籍不明機 竹島を銃撃 韓国側言明」,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6.2.

72) 「독도의 우리 어민에 대한 일본 경비선의 발포」, 《조선일보》 1954.6.4, 사설.

라고 생각된다. ‘쓰가루’는 내무부가 독도에 조사대를 급파한다는 발표를 듣고 일본의 영토표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24차 다케시마 순시”라고 하여 독도 해역에 23일에 침입하였다. ‘쓰가루’는 독도에 1km까지 접근해 일본의 영토표주가 철거된 것이나, 태극기를 게양한 배 7척이 정박하고 있는 것 등을 확인한 후 한국 측에 발견될 것을 염려해 급히 독도를 떠났다고 한다.⁷³⁾

‘쓰가루’ 침입 사건에 관해 외무부는 일본정부에 각서를 보내 항의하였다.⁷⁴⁾ 그러나 외무부는 정체불명 비행기의 기총사격에 관해서는 각서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이 그런 기총사격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미국은 1952년의 독도폭격사건을 계기로 폭격 연습을 중지했으므로 폭격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일본은 헌법 9조에 의해 국제분쟁에서의 무력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본의 소행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일본외무성은 이 보도를 논평해 “일본 것이라고 생각되는 비행기에 의한 다케시마 총격 등 사실무근의 선전을 하고 국내 여론을 부추기고 7월에는 국회의원 시찰단을 파견”했다고 비난하였다.⁷⁵⁾

한편 내무부는 일련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해양경찰대 경비선을 6월 8일에 파견하였다.⁷⁶⁾ 그런데 경비선 ‘직녀호’는 격랑 때문에 돌아왔으며 11일에 다시 파견되었다.⁷⁷⁾ 해양경찰대의 두 번째 순찰이다. 이 일을 《아사히신문》은 “한국, 竹島에 파병”이라는 제목으로 UP통신을 인용해 내무부장관 백한성의 발언을 “한국 연안경비대는 竹島를 지키는데 충분한 경비정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동도에 주류군을 두도록 명령하

73) 「竹島に韓国船七隻」,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5.26.

74) 외무부, 전제서, 84쪽.

75) 「その後の竹島問題」,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11.15.

76) 「일련의 독도사건 내무부서 경위 발표」, 《동아일보》 1954.6.11; 「독도에 조사대 급파」, 《조선일보》 1954.6.12; 「竹島に警備艇」,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6.11.

77) 「격랑 만나 귀환」, 《조선일보》 1954.6.16.

였다”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8일의 경비정 파견에 관해서는 “동도에 연안 경비정 6척을 보냈으나 거친 날씨 때문에 동도를 조사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고 전하였다.⁷⁸⁾ 직녀호 1척의 파견을 경비정 6척으로 전하고 경비선의 파견을 파병으로 전하는 등 한국의 발표 혹은 일본의 보도에 문제가 많다.

경비선 ‘직녀호’는 조사 결과 독도 바위에 새겨진 태극기와 표지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의 수산시험선이 5월 28일에 독도에 나타나 “어로중인 상이군인 6명과 기타 어부들과 이야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직녀호’가 독도로 간 흔적이 일본 순시선 ‘구즈류’의 “제27차 다케시마 순시”에 의해 확인되었다. 순시선은 서도 동북쪽 벼랑에 〈그림 2〉와 같이 “織女 14.6 54”라는 글자가 있는 것을 기록하였다. 이 글자는 1954년 6월 14일에 직녀호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해양경찰대는 5월부터 경비정을 한 달에 한 번씩 독도로 파견했지만, 독도 경비는 충분치 않았으며, 독도 방위 강화가 시급한 문제였다. 내무부는 “독도를 완전히 방어하고 독도에 항만시설을 서둘러, 어선이 독도를 중심으로 어로할 때 선원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조사하기 위해 ‘독도조사반’을 현지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항만시설’이란 등대의 건설 등을 가리키는 듯하다. 조사단의 출발시일은 대외관계를 고려해 비밀로 되었다.⁷⁹⁾ 그런데 ‘독도조사반’은 해양경찰대 ‘화성호’가 파견된 7월 25일 이전에는 파견되지 않았던 것 같다. 화성호의 파견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4) 일본정부의 방침 전환과 독도의 가치

일본정부는 앞에 쓴 것처럼 “(A) 한국 어민의 미역 채취를 막는다”는 방

78) 「韓, 竹島に派兵」,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6.18.

79) 「독도 방위 강화」, 《조선일보》 1954.6.19.

침을 세웠지만 5월 23일에 독도에 침입한 순시선 ‘쓰가루’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이는 6월에도 마찬가지이며, 6월 16일에 독도 해역에 침입한 ‘쓰가루’는 독도 1km까지 접근해 한국 어민들이 발동기선 2척, 전마선 2척으로 조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실력행사를 하지 않았다. 쓰가루는 실력행사 대신에 어민들을 협박하였다. 이때의 일을 ‘쓰가루’에 탔던 외무성 제5과 사무관 마에다 도시가즈(前田利一)는 “동도 가까이 보트를 댈 수 있는 곳까지 갔더니 바위굴 같은 움막에서 사람이 나왔으므로 경비정은 급히 떠나, 섬을 멀리 돌아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가 한국어로 “여기는 일본 영토이며 당신들은 불법체재이므로 즉각 퇴거하라. 퇴거하지 않으면 체포당하게 된다”고 확성기를 통해 10번 가량 되풀이하었다”고 기록하였다.⁸⁰⁾ 순시선은 분명히 한국 측의 공격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1년 전처럼 실력으로 한국 어민들에 퇴거를 강요하지 않았다. 실제로 해양경찰대 경비선이 독도에 드나드는 상황에서 일본 순시선이 많은 한국 어민들의 조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독도는 시마네현민을 비롯한 일본인들에게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다음에 일단 독도의 경제적인 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954년 당시의 독도 어업인데 연안어업은 한·일 양국에서 미개발 상태였다. 또한 강치는 100마리 이하로 감소해 이미 어업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독도 어업은 채취어업에 한정되었다. 채취어업은 전복, 소라, 미역이 중심이다. 이 중에서 전복과 소라는 1953년 5월에 시마네현 어민들이 기대를 걸고 채취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어긋났으며 수확이 적었다. 일본에서 독도는 전복, 소라가 무진장으로 있는 보물의 섬이라는 전설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더구나 독도의 소라는 일본에서 ‘지사자에’라고 불리는데 살이 질기며 상품가치가 낮았다.⁸¹⁾

나머지 수산물은 미역이다. 울릉도민의 독도에서의 미역 수확고는 1952

80) 外務省, 前掲, 文書番号910, 15~25쪽.

81) 박병섭, 전계서, 80쪽.

년에 2억 원 이상이며,⁸²⁾ 독도의 중요한 수산자원이었다. 앞의 《니혼카이신문》 기사에 의하면 미역의 값은 37.5kg로 1만엔 (1kg당 267엔), 쌀은 75kg로 3,500엔 (1kg당 47엔)이라고 한다. 이런 값이 소비자 가격이라면 미역의 가치는 쌀의 5.73배다. 한편 일본에서 미역의 값은 쌀의 1.04배이므로⁸³⁾ 한국에서 미역은 일본의 약 5.5배 ($5.73/1.04=5.51$)나 가치가 있었다. 환언하면 일본에서 미역의 가치는 한국의 약 18%이다. 게다가 적갈색 미역은 일본에서 상등품이 아니며 가치는 더욱 떨어진다. 따라서 일본에서 독도 미역의 채취는 거의 매력 없었다. 1953년 6월에 시마네현 수산 기사 이가와 노부오(井川信夫) 등은 독도 어장을 조사한 결과 “네쓰키(根付)어업” 즉 채취어업에는 기대를 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⁸⁴⁾ 그대로였다. 게다가 독도로의 항해는 불안정하고 힘들었으며, 1942년 이후 독도에 스스로 출어한 시마네현 어민은 없었다.⁸⁵⁾ 이런 사정 때문에 일본정부도 한국인의 어업을 막는다는 독도 탈환 방도 (B)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7월 8일에도 순시선 ‘헤쿠라’가 “제26차 다케시마 순시”라 하여 독도 3해리까지 접근했으나 발동기선 1척과 전마선 1척이 독도에 계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뿐 그냥 회항하였다.

82) 외무부, 전게서, 44-46쪽.

83) 계산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미역의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1960년에 쌀은 아래 사이트에 의하면 1kg당 85엔이다.

http://www4.airnet.ne.jp/sakura/beika/beika_syowa.html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의 아래 사이트에 의하면 1960년에 일본 전체 미역 수확량은 62,664톤, 금액은 27억 5700만 엔이므로 생산자가격은 1kg당 44엔이다. 소비자가격을 생산자가격의 2배로 가정한다면 미역의 소비자가격은 1kg당 88엔이 되므로 쌀 가격의 1.04배가 된다.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bid=000001024929&cyclo=0>

http://www.e-stat.go.jp/SG1/estat/GL08020103.do?_toGL08020103_&classID=000001024930&cycleCode=0&requestSender=estat

84) 澤富造·井川信夫, 前掲 「復命書(1953.6.28)」; 박병섭, 전게서, 72쪽.

85) 박병섭, 「일본의 새 논조와 일제시대의 독도 어업」, 『독도연구』 9호, 2010, 242쪽; 박병섭, 전게서, 87쪽.

이 직후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다시 독도 방문을 계획하였다.⁸⁶⁾ 참의원 의원 단 이노(團伊能)와 나카다 요시오(中田吉雄)는 7월 12일에 오키 지청(支廳)에서 현지 어업자들과 좌담회를 가진 후, 오후 5시 넘어서 독도 시찰에 출발했다고 한다.⁸⁷⁾ 그렇다면 독도 도착은 심야가 될 것이며 독도를 전혀 볼 수 없다. 본래 의원들의 주목적은 ‘리라인’(평화선) 시찰이며 독도 방문은 명목뿐이었던 것 같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이 날에 순시선이 독도로 갔다는 기록이 <표 3>에 없다.

5) 독도의 무장

일본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다는 소식은 한국 측을 자극하였다. 1954년 7월 23일 정부에서는 내무부 치안국장 김장흥, 외무부 정보국장 이수영, 법무부 법무국장 박천일 등 관계부처 국장들이 대책을 협의해 독도 경비 강화를 결정하였다.⁸⁸⁾ 또한 국회에서는 민의원 내무분과위원장 외 12명으로 구성된 해양주권선시찰단이 24일에 ‘화성호’와 ‘칠성호’를 타고 평화선을 시찰하였다. 이 중에서 ‘화성호’를 탄 의원 3명은 신문기자들과 함께 25일에 멀리 독도도 시찰하였다.⁸⁹⁾ 시찰단은 독도를 방문한 기념으로 <그림 2>와 같이 서도 벼랑에 큰 글자로 “단기 4287年 7月 25日 大韓民國國民議員視察 金相敦 廉友良 金東郁 海警隊 火星號”라고 썼으며, “우리 해경대가 벌써 흰 뺑기로 사겨놓은 태극기는 섬 중턱에 석연히 빛나고” 있음을 보았다.⁹⁰⁾ 또한 “우리 울릉도 자위대의 경비막(警備幕)으로 추측

86) 전번의 계획은 6월 16일이었다. 《조선일보》 1954.7.16자 기사 「일 참의원 독도 조사 계획」에 따르면 참의원 의원 단 이노는 “6월 16일에 독도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해양감시선이 독도 주변에 증강되고 있어서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87) 「參院兩氏ら竹島視察」,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7.13.

88) 「독도 경비 강화를 명령」, 《동아일보》 1954.7.25; 「독도 방위에 만전」, 《조선일보》 1954.7.25; 「韓國, 竹島警備를強化」,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7.24.

89) 「독도시찰의원단」, 《조선일보》 1954.7.28.

되는 판자집이 서편쪽 기슭에 보였다”고 한다.⁹¹⁾ “울릉도 자위대”는 독도 자위대를 가리키는데, 이날에 독도자위대의 경비 천막은 있었지만 대원들은 없었다. 그러나 3일 후에 천막 근처에서 경비원 6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본 순시선에 의해 목격되었다.

경비원들을 목격한 순시선은 7월 28일 독도에 침입한 ‘구즈류’였다. ‘8관본부’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 방문을 위해 24일에 부산을 출발했다는 보도를 듣자,⁹²⁾ 곧 “제27차 다케시마 순시”라고 하여 ‘구즈류’를 독도로 파견하였다. 순시선 임검반은 <표 3>에 의하면 7월 28일에 보트로 갈아타고 독도 지근거리까지 접근해 “서도에 천막을 치고 한국 경비원 6명이 작업 중”임을 보았으며, 서도 북쪽 바위에 <그림 2>과 같이 “7月25日 大韓國民議 · · · 火星号 海警隊”라는 글자를 발견하였다. 또한 순시선은 <그림 3>와 같이 “동도 남쪽 벼랑에서 새 로프가 14~15m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중턱 동굴에 올라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추측하였다.⁹³⁾

순시선은 <표 3>에는 구즈류 1척이지만 《아사히신문》은 ‘8관본부’ 발표를 인용해 순시선 ‘노시로’(243톤)도 독도로 갔다고 전하였다. 또한 8월 4일에 현장조사를 한 해양경찰대 소속 七星艇의 보고에 따르면 “7월 29일 오전 10시경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 P518(선명 불상 500톤급) 및 P509(선명 불상 300톤급) 2척이 독도해상에 출현했다”고 한다.⁹⁴⁾ P509는 PS09의 잘못이며 이는 ‘구즈류’ 270톤급이다.⁹⁵⁾ P518는 PS13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노시로’ 270톤급이다. 또한 사건 당일이 29일로 기록됐으나 이는 28일이 옳다고 생각된다.

90) 「절해의 섬 ‘독도’를 찾아서」, 《동아일보》 1954.7.29.

91) 「풍파 거센 독도」, 《조선일보》 1954.7.29.

92) 「韓国議員団 竹島を視察」,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7.26.

93) 「韓国警備員がテント」,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7.30.

94) 정병준, 전계서, 419쪽.

95) 박병섭, 전계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표 2를 참조.



〈그림 3〉 동도 부분 확대도

순시선 임검반은 파도가 높았기 때문에 독도에 상륙하지 않고 서도에서 천막을 치고 작업 중인 6명에 “마이크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임을 통고하였다”고 한다.⁹⁶⁾ 한편 앞의 칠성정 보고는 “한국 측의 삼엄한 경비로 상륙하지 못하자 선박의 마이크를 통해 한국 측 경비원에 대하여 일본어로 “여기는 우리의 영토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운운하였다고 한다. “경비원” 6명은 흰 셔츠, 녹색 바지를 입은 단장한 옷차림이었는데 그들은 민의원시찰단이 말한 독도자위대의 대원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이 천막을 친 장소는 〈그림 1〉 B지점, 서도 서북쪽 물골 지역이며 독도에서 유일하게 물이 솟아나오는 곳이다. 또한 민의원시찰단이 독도자위대의 ‘경비막’을 확인한 곳이다. 순시선은 “경비원”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나, 만약 “경비원”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보트로 다가온 임검반에 경고 사격을 가했을 것이다. 칠성정 보고 및 일본 보도에 그런 기사가 없으니 무기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1954년 7월 말까지는 순시선이 11회 독도로 침입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거의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6월과 7월에는 독도에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허용한 셈이 된다. 더군다나 6월에는 어민들에 대한 협박까지 허용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7월 말까지 순시선 침입 11번 중에서 한국 측이 인식한 침입은 단지 3회(제24-26차)뿐이었다. 내무부장관은 “당분간은 해양경비의 주력은 독도에 두고 영토방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지만,⁹⁷⁾ 해양경찰대의 함정 부족은 심각하며 한국 측의 독도 경비는 미약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가진 앞의 민의원 독도시찰단은 시찰 후에 “독도에 대한 일부원문대로의 침략성을 경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등대를 세우고 무장병을 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⁹⁸⁾ 이런

96) 「竹島に警備隊常駐」,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7.30.

97) 「해양경비의 강화」, 《조선일보》 1954.6.19.

98) 「독도에 등대 세우라」, 《조선일보》 1954.8.8.

목소리를 받들어 “김 치안국장은 27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방위할 만전의 시책은 이미 갖추어졌다고 언명하는 동시에 이의 개발을 위한 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조직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⁹⁹⁾ 또한 일본 보도에 의하면 한국국경본부는 7월 29일에 “정부는 곧 竹島[독도]에 경비대를 파견할 것이다”라고 발표하고, 경찰당국자는 “竹島로 경비대를 파견하는 것은 지금 섬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연안경비선과 교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였다.¹⁰⁰⁾ 실제로 위와 같이 8월 4일에 칠성정이 파견됐다.

정부는 8월 1일에 “독도 경비명령”을 내려 경비대 초소의 건설을 시작하였다.¹⁰¹⁾ 또한 교통부는 등대를 설치해 8월 10일부터 아세틸렌 가스등을 점등하고,¹⁰²⁾ 23일에 한국 주재 외국 공관에 통고하였다.¹⁰³⁾ 등대의 의의를 《조선일보》는 사실에서 어민들에 항해상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도에 등록되므로 한국의 독도 영유의 증거물이 된다고 강조하였다.¹⁰⁴⁾ 또한 돌로 만든 새 영토표지를 8월 24일에 설치하였다. 표지는 이번에는 한글이 아닌 한자로 “大韓民國 慶尙北道 鬱陵郡 獨島”라고 표기하였다. 표석의 높이는 120cm, 대석을 포함한 전체 높이는 145cm였다.¹⁰⁵⁾ 한편 경비초소인데 치안당국은 “8월 26일, 독도에 경비초소를 설치하고 경비원으로서 경사 1명, 순경 4명, 의경 10명을 주둔시켜” 독도를 경비시켰다고 한다.¹⁰⁶⁾ 경비초소의 건설 등에 있어서 독도자위대가 협조했을 것 같으며, 28일에 촬영된 “독도 경비 초소 및 표식 개막 기념사진”

99) 「명함인사를 배격, 김 치안국장 독도문제 등 언급」, 《조선일보》 1954.7.29.

100) 「竹島に警備隊常駐」,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7.30.

101) 「독도 카메라 담방(2) 집은 경비초소뿐」, 《동아일보》 1956.8.21.

102) 「竹島に無人灯台」,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8.12.

103) 「韓国竹島に灯台設置」, 《山陰新報》 1954.8.24.

104) 「독도에 불멸의 등대」, 《조선일보》 1954.8.15.

105) 정병준, 전계 논문, 439쪽.

106) 『국립경찰 50년사』, 경우장학회, 1995, 335쪽; 김윤배·김집구·한성민, 전계서, 190쪽.

에 제복 제모 차림의 자가 6명, 기타 사복 차림의 자가 26명 있었는데 사복 차림의 자 중에는 독도자위대원이 많았을 것이다. 이 사진에 상징적으로 볼 수 있듯이 독도 경비체제는 관민 공동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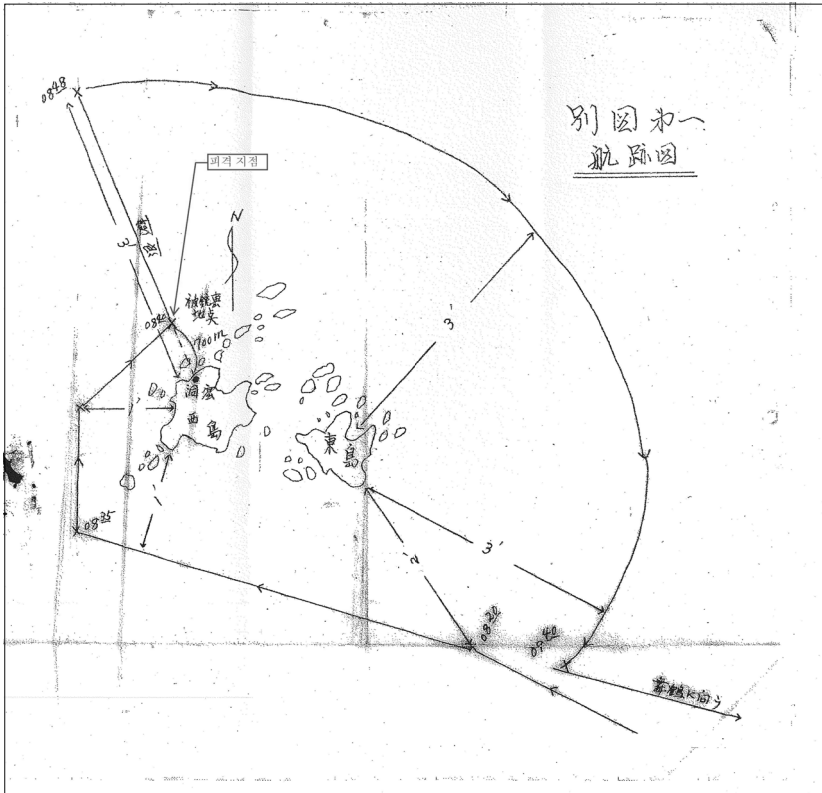
6) 순시선 ‘오키’ 총격사건

독도의 경비태세가 거의 마련된 8월 23일에 순시선 ‘오키’가 독도에 침입하였다. 이때에 ‘오키’는 안이하게 독도에 접근해 서도에서 총격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기록에 관해 ‘8관본부’는 해상보안청 경비구난 부장에 보낸 「제28차 다케시마 특별 단속 실시 경과에 관하여」를 정보공개하였다. 이 문서는 ‘오키’ 선장이 ‘8관본부장’에 보낸 「제28차 다케시마 특별 단속 실시 경과 개요보고」, 「항적도」〈그림 4〉, 「조사도」〈그림 1〉 등으로 구성된다. 보고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8월 23일 08시 20분 ‘오키’는 다케시마 동남 2해리 지점에 도착해 한국 함정을 경계하면서 〈그림 4〉처럼 시계 방향으로 섬 주위를 항행하였다. 동도 서쪽(그림 3)에는 재목이 수십 개 놓여있으며 항구적인 설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동굴 안은 판자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며 경비원 10명가량이 항상 경계하고 있는 것 같다. 서도 남쪽에 흰색 한글 두 글자가 있다. 08시 40분에 서도 서쪽을 항행했는데 이때는 역광 때문에 섬의 상황이 분명하지 않았다.

배는 서서히 서도로 다가가고 서도 북북서 700m 지점에 왔을 때에 갑자기 동굴 근처(그림 1) B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곧 북북서쪽으로 퇴피했는데 탄환 1발이 오른쪽 뱃진 브리지의 전지실(電池室) 벤틸레이터를 관통해 브리지 포켓 스크린에 부딪쳐 바다에 떨어졌다. 총격은 400발, 10분가량 계속됐는데 브리지 상부를 목표로 삼은 것 같아 제법 정확하였다. 총성에서 판단하면 총은 단발, 연발 2종류가 사용되었다. 배가 섬에서 2,000m 떨어졌더니 탄환이 도달하지 않았다.

배는 섬에서 3해리 떨어져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섬 주위를 항행하였다. 동도 북단에는 높이 6m, 철재로 된 흰색 삼각형 등대가 있는데 점등



〈그림 4〉 '오키 총격사건' 때의 항적도
 (출처: '8관본부장' 「제28차 다케시마 특별 단속 실시 경과에 관하여」)

하지 않았다. 안테나 등 통신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조사를 끝나고 09시 40분에 귀항하였다.

소견

- (1) 한국 측은 무력을 쓰더라도 다케시마를 탈취할 의도를 가지고 등대 설치, 경비원 상주 등 기정사실을 만들고 있다.
- (2) 지난번 조사 때 경비원들은 서도 서북 동굴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천막이 없으므로 동굴에 항구적인 시설을 설명한 것 같다. 또한 동도에 보이는 목재는 무언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 같다.

- (3) 경비원의 무기는 소총, 자동소총인데 앞으로는 중화기도 예상된다.
 (4) 한국 측 총격은 위협이 아니라 조격이 목적이므로 대항수단이 없는 한 섬에 접근해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오키’를 총격한 장소는 독도자위대가 경비 천막을 친 곳이다. 따라서 ‘오키’를 총격한 자들은 독도자위대원들이었다고 생각된다. 8월 30일 이 사건에 관해 한국정부 특별조사반 보고서는 “오키는 23일 오전 8시 竹島[독도]에 상륙하기 위해 섬에서 500m 앞바다까지 접근했기 때문에 한국 측은 철퇴하도록 신호를 보냈다. 오키는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측은 경고의 뜻으로 발포했던바 오키는 한국선박에 발포하고 동쪽에 도망쳤다”고 발표하였다.¹⁰⁷⁾ 보고서는 ‘오키’에 발포한 자를 ‘한국 측’으로만 표현했으며 관리를 시사하는 말이 없었다. 또한 보고서는 “오키는 한국선박에 발포”라고 발표했는데 만약 ‘오키’가 발포했다면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중대문제가 된다. 그런데 주일한국대표부가 8월 30일 일본 정부에 보낸 항의 각서에 ‘오키’의 발포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¹⁰⁸⁾ 따라서 ‘오키’로부터 한국선박에 대한 발포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사건 직후 연안경비대 고관은 독도 방어에 대해 “연안경비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竹島[독도]를 일본의 침략에서 지킬 것이다. 한국 측은 竹島에 진지를 구축했으며 침입하는 어떤 일본 배도 여기에서 포격을 가할 수 있다. 한국은 이 섬을 일본의 침입에서 지키기 위해 이 섬에 순시선 1척과 경비대 상당수를 파견해 경계시키고 있다. 한국은 이 섬에 침입을 도모하는 일본 선박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포격을 가하고 격침한다”고 말하였다.¹⁰⁹⁾ 또한 일본 공동통신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8월 31일 내각회의에서 독도 방위를 위해 수백 명의 해상경비원들을 독도로 상주시킬 것을 결정하고 추가 예산 3천만 환(약 6천만 엔)을 계상하였다.¹¹⁰⁾ 파견될 경관

107) 「日本巡視艇が挑発」, 《山陰新報》 1954.8.31.

108) 외무부, 전계서, Annex 25.

109) 「竹島, 実力で防衛」,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8.29.

은 “중장비 경찰대”가 된다고 한다.¹¹¹⁾ 이때에 박격포 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정부는 ‘오키’가 조격당한 것을 중대시하고, 외무성, 방위청, 국가지방경찰본부, 입국관리국, 해상보안청 등이 대책을 협의하였다. 이 안에는 “실력행사에 관련된 대처 방침”도 검토됐다.¹¹²⁾ 그러나 일본 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출동하는 등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장에서는 경찰 혹은 해상보안청의 대응에 한정된다. 그러나 그들의 힘만으로는 한국의 무장경비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두 가지 독도 탈환 방도는 완전히 파탄했으며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방도의 하나로 일본정부는 총격사건을 한국에 항의하는 것과 아울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일본의 독도 침입을 비난했으며,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한 일본의 제안을 일축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다음 방도로 미국을 개입시키려고 하였다.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31일 UN군사령관 헐(John E. Hull)과 면담해 ‘오키’ 총격사건을 논의한 뒤,¹¹³⁾ 미국을 방문하였다. 9월 10일 요시다는 미국무부장관 덜레스(John F. Dulles)와 회담을 가지고 한·일관계에 대해 “대국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¹¹⁴⁾ 이때에 독도문제도 당연히 논의됐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무부는 이미 1953년 12월 9일에 덜레스가 주한 및 주일미국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미국은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되며, 문제 해결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22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¹¹⁵⁾ 이 때문에 미국을

110) 「竹島防衛に三千万圓」,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1954.9.1.

111) 「竹島に強力警察隊」, 《山陰新報》 1954.9.11.

112) 小野啓一, 전계 「陳述書」, 53쪽.

113) 「‘오키’銃撃事件が契機」, 《夕刊山陰》 1954.9.6.

114) 「ダレス長官 吉田首相を訪問」, 《山陰新報》 1954.9.11.

개입시키려는 일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으로 해상보안청은 경비구난부장이 “이 사건은 외교교섭에 의한 해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나, 이 사이에도 당청(當廳) 제8관구해상보안본부 순시선이 다케시마 근처를 종래와 같이 순시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여전히 “다케시마 순시”를 계속하였다.¹¹⁶⁾ ‘8관본부’는 10월 2일에 “제29차 다케시마 순시”라고 하여 독도 해역에 침입하였다. 만약의 사태를 고려했는지 순시선은 ‘오키’와 ‘나가라’ 2척이었다. 이들은 독도에서 총격 사정거리를 벗어나는 거리 1.5해리 떨어져 항행하였다. 순시 결과를 《산인신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등도 정상에는 무선탑이 두 개 40m 간격으로 설치되고 탑 근처에는 각각 목조 가옥이 세워져 있다. 등대는 점등되고 4, 5초 만에 섬광이 한번 있다. ‘오키’와 ‘나가라’는 서남쪽으로부터 섬에 접근해 1.5해리의 거리로 시계방향으로 일주했는데 서남쪽 근처에 왔을 때 갑자기 무선용기둥 근처 가옥에서 경비원 7명이 나타나 구 육군의 것으로 보이는 산포(山砲) 덮개를 열고 두 배를 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목격에 의한 경비원의 인원수 및 시설 가옥으로 판단해 약 1개 분대(24-25명)의 병력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8월 23일 순시선 ‘오키’의 조사) 총격을 받은 동굴 근처에는 사람, 시설 등이 보이지 않았다.¹¹⁷⁾

순시선은 무선탑을 확인했는데 이는 8월 23일의 ‘제28차 순시’때에는 없었으며 이번에 발견된 것이다. 무선시설은 『경찰십년사』에 따르면 독도에는 1954년 8월 10일 무선시설의 착공을 시작하고, 9월 20일 이를 완성하였다.¹¹⁸⁾ 한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독도-울릉도 간의 무선시설은

115) 딜레스 서한의 영인은 국사편찬위원회, 『독도자료』III, 2008, 184쪽; 정병준, 전 계서, 797쪽; 박병섭, 전계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188쪽.

116) 「銃撃事件放置できぬ」, 《山陰新報》 1954.8.28.

117) 「巡視船へ発砲の構え」, 《山陰新報》 1954.10.5.

118) 내무부, 『警察十年史』, 백조사, 1958, 495쪽; 정병준, 전계 논문, 441쪽.

1954년 8월 27일 하오 3시부터 개통됐다고 한다.¹¹⁹⁾

그런데 순시선이 ‘산포’라고 본 것은 실은 독도자위대가 나무로 만든 위장 대포였다. 대원 정원도의 말에 의하면 이는 굵은 9자(2.7m)짜리 원목을 대포로 보이도록 앞에 구멍을 파서 만든 나무 대포였다.¹²⁰⁾ 이 사건에 관해 《요미우리신문》은 10월 10일 석간 1면에 “다케시마는 무장하였다”, “산포나 무전탑도 갖춘 다케시마”, “포좌 근처에 때를 짓는 한국해양경비대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였다. 또한 대포나 무전탑의 원경사진도 1면 전면을 쓰고 소개하였다.¹²¹⁾ 경비원에 관해서는 “영주할 각오를 가진 것 같으며 신설 가옥도 세워졌다”고 보도하고, 순시선이 뱃머리를 접근시켰을 때 경비원이 나타나 “갑자기 포구를 우리 쪽으로 향했다. 바로 일촉즉발이었다”고 보도하였다. 나무 대포의 효과는 대단했으며 독도는 무장했다고 일본 측은 인식하고 경계심을 높였다.

7) 순시선 ‘해쿠라’ 포격사건

해상보안청에서는 독도에 배치된 ‘산포’에 의해 순시선은 포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실제로 순시선이 포격당한 사건이 11월 21일에 일어났다. 이 사건 기록으로 ‘8관본부’는 본부장이 해상보안청 경비구난부장에 보낸 「제30차 다케시마 특별 단속 보고에 관하여」를 정보공개하였다. 이 문서는 선대(船隊) 지휘를 맡은 ‘사카이(境)해상보안부장’이 ‘8관본부장’에 보낸 21일자 「제30차 다케시마 특별 조사 보고」, 「항적도」 2장, 「관련 전보 복사」, 「전파(電波) 청취 상황」으로 구성된다. 이들을 종합하면 포격사건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순시선 ‘오키’와 ‘해쿠라’는 20일 18시 00분에 오키 우라고(浦郷)를 출발

119) 《조선일보》 1954.8.30.

120) 「독도경비 25시(2)」, 《영남일보》 1977.3.5.

121) 「竹島は武装した」, 《読売新聞》 1954.10.10.

해 천천히 다케시마로 향하였다. 24시 00분에는 발견되지 않도록 등화 관제를 실시해 항해등마저 켜지며, 21일 04시 00분에 리라인평화선을 통과하였다. 06시 00분 섬에서 12해리 지점에 도달했을 때 승무원들을 제자리에 배치시켜 방탄을 준비, 중요 서류를 정리하고 엔진을 강속(強速)으로 올려 다케시마로 향하였다.

‘오키’는 <그림 5>와 같이 섬 남쪽을, ‘헤쿠라’는 북쪽을 각각 3해리 떨어져 항행하였다. 06시 55분 ‘헤쿠라’는 동도 북단에 등대를 확인했는데 그 3분 후에 포격을 당하였다. 포탄은 5발이며 배에서 약 1해리 떨어진 해면에 물보라를 일으켰을 뿐이며 피해는 없었다. 발포 지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동도에 태극기를 게양한 무선용 기둥 근처에 14~15명이 움직이고 있었다. 거기에 포좌의 높이가 90cm 정도 되는 대포 같은 것이 있었으나 이는 동남쪽을 향한 채 선화하지 않았으므로 위장 대포라고 생각된다. 포격은 박격포에서 당한 것으로 보인다. 서도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07시 16분 귀항하였다.

한편 섬에 접근하기 전부터 섬으로부터의 전파 담지를 했는데 아무 정보가 없었으며 09시 00분에 담지를 중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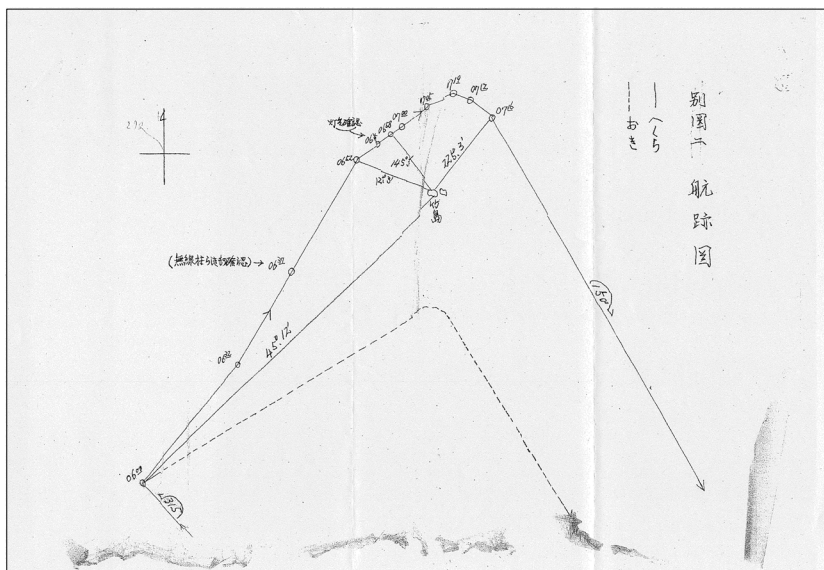
이 포격사건을 《산인신보》는 “포탄은 배에서 약 1m 앞 바다 속으로 낙하하였다”고 보도하였다.¹²²⁾ 그러나 정보 출처인 ‘8관본부’는 1해리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1해리가 옳을 것이다. 또한 《산인신보》는 “동도독도를 망원경으로 보았더니 대체로 3인치 대포로 보이는 것이 3문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썼으나 이도 ‘8관본부’의 정보에는 없다.

포격사건을 증시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11월 30일자 항의 각서를 보냈다. 각서는 “헤쿠라가 독도 서도 서북 약 3해리에 도달했을 때 이 섬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한국 당국은 오전 6시 58분부터 7시까지 포탄 5발로 동선을 포격하였다”고 적었다.¹²³⁾

이에 대해 외무부는 12월 30일자 각서에서 일본 철선 2척이 독도 서도

122) 「2巡視船砲撃さる」, 《山陰新報》 1954.11.21.

123) 외무부, 전계서, 90쪽.



〈그림 5〉 '오키(남쪽)와 '헤쿠라'(북쪽) 항적도
(출처: '사카이해상보안부장' 보고서 「제30차 다케시마 특별 조사 보고」)

로부터 1,500야드로 접근하였으므로 퇴거하도록 신호하고 다음에 연막탄을 발사했으나 이를 무시해 점점 접근해 왔으므로 한국관리들은 독도를 수호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경고탄을 발사하였다고 회답하였다.¹²⁴⁾ 외무부는 관리가 발포했다고 썼지만 보도에 의하면 박격포를 쏜 자는 독도의용수비대원 서기종과 김병렬이라고 한다.¹²⁵⁾ 그들은 군대에 있었을 때에 박격포 사수였는데 대장 홍순철의 명령에서 가늠자가 없는 박격포를 각도만으로 조정해 발사했다고 한다. 울릉경찰서는 이런 수비대원들의 독도수호활동을 인정해 12월 말에 대원 중 희생자 9명을 경찰관으로 임명하고 경비태세를 강화하였다.

'8관본부' 보고서는 섬으로부터의 전파 담지를 했는데 아무 정보가 없었

124) 위의 책, 92~93쪽.

125) 「독도경비 25시(2)」, 《영남일보》 1977.3.5.

다고 썼는데, 이는 무선통신사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11월 10일 경찰관이며 무선통신사 허학도는 벼랑에서 떨어져 불행히도 사망했는데, 그를 대신할 통신사는 아직 부임하지 않았던 것 같다.

4. 1955년 이후 순시선의 독도 침입

순시선이 독도에서 잇따라 총격·포격 당한 사건을 계기로 해상보안청은 순시선 파견에 신중하게 됐다. 1955년에 들어 순시선의 파견은 <표 4>와 같이 2~3개월마다 모두 5번이며 빈도가 전년에 비해 1/3로 격감하였다. 순시선은 독도에서 4-5해리 떨어져서 독도의 상황을 살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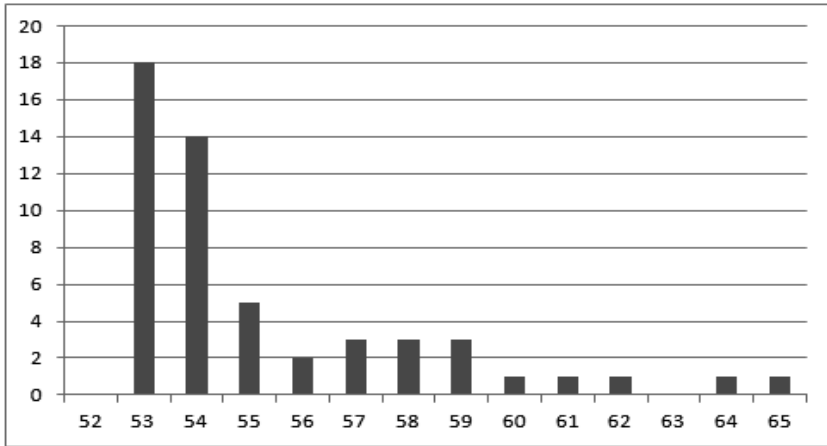
<표 4> 1955-1965년 순시선의 독도 해역 침입

연	차	월 일	사용선	거리	특기 사항	항의 날짜
55	31	2/2	헤쿠라 쓰가루	4.5해리	독도 정상에 무선용 기둥 2개, 평탄부에 포대 1문 있음.	
	32	4/26	쓰가루	5해리	독도 동북쪽 산턱에 1층 숙소 2채, 북쪽 돌단에 홍백 등대 1기(높이 6m, 불이 없음) 있음.	
	33	7/19	헤쿠라	4해리	등대 점등 중. 백색 사각형 각 면에 "ROK"라고 가로 쓰고 등대 근처에 경비원 5명이 있음.	8.16 8.24
	34	9/23	쓰가루	4해리	등대 내 백광이 3초마다 1섬광.	
	35	12/28	쓰가루	5해리	등대 소등 중.	
56	36	4/8	헤쿠라	6해리	숙사를 눈으로 확인.	
	37	11/8	헤쿠라	2.5해리	등대 근처에 경비원 5-6명.	
57	38	4/9	쓰가루	3.2해리	등대 근처에 1명.	5.8
	39	8/11	오키	4.4해리	등대 소등 중. 근처에 2명.	12.25
	40	10/20	쓰가루	3.6해리	등대 근처에 2명.	상동

58	41	1/19	쓰가루	2해리	등대 근처에 3명.	
	42	5/7	헤쿠라	1해리	등대 소등 중. 등대 근처에 2명.	10.6
	43	9/10	헤쿠라	1해리	등대 점등 중. 근처에 5명.	상동
59	44	1/28	헤쿠라	400m	숙사를 눈으로 확인. 등대 소등 중.	
	45	6/19	헤쿠라	500m	등대 점등 중. 근처에 6명, 전마선 2척, 해녀 6-7명.	
	46	9/15	헤쿠라	보트로 접근	경비원 6명을 눈으로 확인, 이들 중 2명은 자동소총을 소지.	9.23
60	47	12/8	헤쿠라	1.3해리	동도 기설 숙사의 지붕을 개수, 곳간 비슷한 건물에 굴뚝을 신설. 등대 점등 중.	12.22
61	48	12/3	헤쿠라	1km	등대 점등 중. 비무장 인원 9명. 그들 중 1명은 헤쿠라를 쌍안경으로 지켜봄.	12.25
62	49	12/22	오키	1.5해리	동도 남동쪽 해면상에 콘크리트로 만든 양륙 시설 같은 것을 눈으로 확인. 등대 점등 중(6초에 1섬광), 비무장 인원 3명, 그들 중 1명은 오키를 쌍안경으로 지켜봄.	1963. 2.5
64	50	1/31	헤쿠라	1.8해리	등대와 병사 간에 40mm 기관포 1문, 산포 1문 신설, 병사 동쪽에 경비원 1명, 등대 점등 중.	3.3
65	51	2/13	오키	1해리	서도에는 시설이 없음. 동도에 무선 안테나 3개, 병사에 굴뚝이 있음. 등대 옆에 한국기 게양. 곳간 4채. 전마선 1척, 경비원 6-7명.	4.10

* 이 표는 외무성 전계 문서번호 910을 바탕으로 작성함

1956년 이후 순시선의 침입은 연 2~3회로 줄었다. 순시선은 멀리서 독도에 변화가 없는지, 혹은 등대나 사람들의 상황 등을 살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59년 1월 29일에 순시선 '헤쿠라'가 독도 400m까지 접근해 독도 상황을 살폈다. 이 배경에는 한·일간 외교 갈등이 있었다. 당시 일본이 재일한국인을 북한에 송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



〈그림 6〉 순시선의 연별 독도 침범 횟수
(외무성 문서번호 910 등을 바탕으로 작성함)

화되고 있었다. 주일한국대표부 유 공사는 “그것[송환]이 실시되면 일·한 회담의 결렬은 물론 양국은 모든 문제에서 충돌할 것이다 . . . [중략] 물론 송환시의 항행 안전 등은 보증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¹²⁶⁾ 송환이 실시되면 송환선의 항로는 독도 동쪽 바다가 되므로 일본정부는 독도의 무장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었다. 6월 19일에는 〈표 4〉에 의하면 순시선 ‘헤쿠라’는 500m까지 접근해 사진을 촬영하였다. 또한 송환 개시 3개월 전인 9월 15일에도 ‘헤쿠라’는 독도에 500m까지¹²⁷⁾ 접근해 보트로 독도 지근거리로 들어가서 조사하였다. 한국이 독도를 기지로 삼아 송환선을 공격할 가능성을 살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처럼 수차례 순시선이 독도 지근거리로 접근해도 독도에서 순시선에 대한 경고는 없었던 것 같다. 독도 경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정부는 송환선의 안전을 확신했을 것이다.

126) 高崎宗司, 『檢証 日韓會談』, 岩波新書, 1996, 94쪽.

127) 「日本巡視船이 獨島近海侵入」, 《동아일보》 1959.9.19.

1960년 한국에서 4·19혁명이 일어났다. 혁명 후 한일관계는 비교적 평온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로의 순시선 파견은 <그림 6>와 같이 연 1회 정도로 줄었다. 순시선의 조사결과는 외무성에 연락됐으며, 외무성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항의각서를 매년 <표 4>와 같이 보냈다.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순시선의 독도 파견을 1968년부터 “통상경비”에서 “연 1회 주변 조사”로 바꾸었다고 한다.¹²⁸⁾ 독도문제의 중요도를 한 단계 낮추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 일본에서는 점차 오징어 낚시 및 대게 잡이 기술이 발달되고 이에 따라 어선이 대형화되어 독도 연안에도 출어하게 되었다. 1977년에 시마네현 어민의 독도 12해리 안에서의 어획량은 오징어가 1억 7,500만 엔, 홍게가 7천만 엔이었다.¹²⁹⁾ 특히 오징어 낚시 배는 독도 지근 거리까지 침입하였다. 한편으로 1970년대는 세계적으로 영해를 12해리로 정하는 기운이 높아졌다. 일본은 ‘영해 12해리법’과 관련해 수상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가 1977년 2월 5일 일본 국회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발언하였다. 이 결과 한·일 간에서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져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본 언론 기관들은 독도를 항공기로 취재했으며, 요미우리신문사 비행기는 2월 8일에, 마이니치신문사 비행기는 2월 19일에 독도 상공을 비행해 사진을 찍었다. 물론 불법 침입이다. 일본은 ‘영해 12해리법’을 3월 29일 내각회의에서 결정해 7월부터 시행하고,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독도 정책을 변경해 “연 1, 2회 순시선이 다케시마 근처를 돌면서 확성기로 권리 주장을 한다”라는 방침을 세웠다.¹³⁰⁾ 이 방침에 따라 8월 31일 순시선 ‘구즈류’가 독도 연안 200-300m까지 침입하였다. 순시선은 독도를 관찰한 결과 “동도에는 등대 1기, 경비 초소 2곳, 소옥 3채, 숙소로 보이는 것이

128) 參議院商工委員會議事録, 1978.5.30, 23쪽.

129) 박병섭, 전개서, 120~121쪽.

130) 「竹島に韓国漁民移住」, 《朝日新聞》 1977.10.25.

1채, 각종 안테나, 석비, 명판 등이 주요 시설이다. 1년 전 조사와 비교해 새로 정상에 총좌가 1기 신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도에는 소옥이 2채 있으며 바위 위에 한국 문자가 기입되고 있었습니다. 동도에는 한국 경비대원으로 여겨지는 자 13명을 확인, “13명 중 9명이 무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³¹⁾ 이런 순시는 외무성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당연히 외무성에 통보되었다.¹³²⁾ 독도에서는 순시선에 대해 “경비병이 총을 돌리고 위협함과 동시에 신호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한 “다케시마에서 8.5해리 떨어진 해상에 전투기 관통으로 추정되는 한국 군용기 2대가 순시선의 상공에 나타나”, “마스트를 스칠 정도로 날았다”고 한다.¹³³⁾ 한국 군용기가 순시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던 것 같다.

한국은 ‘영해 12해리법’을 1978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 12해리 안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들을 일단은 쫓아냈지만 결국은 일본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개월간 일본 어민의 조업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가을부터는 여론에 밀려 일본 선박이 12해리 안에 들어올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¹³⁴⁾ 이에 따라 일본 순시선은 어선이 독도 주변 12해리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자기들도 독도 주변 12해리 안에 침입하는 것을 삼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1981년에 독도에 헬기장을 건설하자 이를 살피기 위해 순시선이 독도 주변 한국 영해를 침범하였다.¹³⁵⁾ 8월 28일 상오 5시 50분 1,000톤급 순시선 PL114 ‘오키’가 독도 등대 500m 앞까지 접근하고 승무원 10여명이 10여분동안 쌍안경으로 독도 쪽을 관측한 뒤 물러갔다고 한다.¹³⁶⁾ 순시선 PL114는 제2세대 ‘오키’다. 또한 1982년 10월 28일에도 일본

131) 상동.

132) 參議院商工委員會(1978.5.25), 海上保安庁警備第2課長 森孝顯 발언.

133) 參議院商工委員會議事録, 1978.5.30, 22~23쪽.

134) 박병섭, 전계서, 120~122쪽.

135) 「日本の巡視艇が竹島の領海侵犯」, 《朝日新聞》 1981.8.29.

136) 「日巡視船 獨島海上侵犯」, 《京郷新聞》 1981.8.29.

정부는 순시선을 독도 주변에 파견하였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독도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순시선을 독도로 파견해 상황을 조사하였다.

5. 맺음말

1953년 6월 독도 탈환을 노린 일본정부는 순시선을 독도로 파견해 독도에 일본의 영토표주를 세우고, 어로 중인 한국 어민들을 심문해 퇴거를 명하였다. 일본정부는 어민 6명의 진술로부터 한국의 독도 통치가 약한 것을 알고 탈취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구체적인 탈취 방도는 (A) 독도에 순시선이나 감시선을 자주 파견해 한국 어민의 미역채취 등을 막는다, (B) 독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독도에 어선을 출항시켜 어민에 어업을 시킨다는 것이었으며, 당분간은 방도 (A)를 실행하였다.

한국 관민은 순시선의 실력행사에 분노해 긴급대책을 세웠다. 7월 12일 울릉경찰서 순라반은 독도에 침입해온 순시선 ‘헤쿠라’를 책망해 울릉도로 연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헤쿠라’는 이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순라반을 야유하듯이 독도를 일주하였다. 이에 분노한 순라반은 ‘헤쿠라’를 위협 사격하였다. 이런 충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후도 순시선을 독도로 파견해 영토표주를 수차례 세웠다. 순시선에 대한 충격은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일본의 영토표주는 1953년 후반기부터 1954년 전반기에 걸쳐 약 80% 기간 독도에 세워져 있었다. 즉 독도는 약 80% 기간 일본에 탈취된 셈이 된다.

1954년 5월초 일본정부는 독도 탈취의 방도 (B)를 실시하였다. 시마네현 어민들의 독도 어업은 1941년 겨울 이후 끊어지고 있었는데 일본정부는 비밀리에 시마네 어민들을 시마네현 어업단속선에 태우고, 이를 순시선 5척이 호위하여 관제 어업을 시켰다. 어민들은 기대한 전복은 적고 질이 좋지 않는 미역을 짧은 시간에 많이 채취하였다. 어민들은 이 어로에

서 독도 어업에 매력이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사정도 있어서 독도 탈취의 방도 (B)는 이후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직후부터 독도의 미역 채취권을 가진 상이군인들 및 이에 고용된 어민, 해녀, 학생들 약 50명이 독도에서 어업을 하였다. 독도의 미역은 일본에서는 질이 떨어져도 한국에서는 일본의 5배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해상보안청은 이처럼 많은 어민들의 조업을 막는 일의 어려움과 한국의 경비 활동을 고려해 독도 탈취의 방도 (A)를 6월에는 사실상 포기하였다.

한국의 독도 경비는 1953년 말부터 해군 대신에 해양경찰대가 맡았다. 해양경찰대는 다음 해 5월 중순에 처음으로 ‘칠성호’가 석공들을 데리고 독도에 가서 서도 벼랑에 태극기 등을 그리고 동도에 한국의 영토표주를 세웠다. 또한 6월에는 해양경찰대 ‘직녀호’가 비슷한 활동을 했으며, 7월에는 ‘화성호’가 민의원 독도시찰단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동만으로는 일본 순시선의 침입을 막을 수 없었다. 1954년 7월까지의 일본 순시선의 침입이 11회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 한국 측은 거의 대처하지 못하였다.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경비원들이 독도에 상주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투철한 애국심과 향토애를 가진 독도자위대(훗날의 독도의용수비대)가 6월 20일부터 독도에 들어갔다고 한다. 7월 하순에는 독도자위대의 임시 경비초소가 서도 물골 지역에 설치되고 8월말에는 해양경찰대의 본격적인 경비초소가 동도에 설치되었다. 또한 등대 및 무선 설비가 동도에 설치되었다.

이런 시기에 순시선 ‘오키’가 독도에 침입하였다. 8월 23일 ‘오키’는 안이하게 독도 서도로 접근해 물골 근처로부터 독도자위대의 총격을 받았다. 일본정부는 총격을 위협이 아니라 조격이었다고 보고 관계기관이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중에는 “실력행사”안도 있었으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하였다. 한국 관민 공동의 독도 수호활동이 일본의 실력행사에 의한 독도 탈환 방도를 완전히 막았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방침을 바꾸어 외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독도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에 제안하였다. 이를 한국이 거부하자 미국을 개입시키려고 했으나 이것도 성공하지 않았다. 한편, '8관본부'는 순시선의 “다케시마 순시”를 계속하였다. 10월 2일 순시선은 독도 동도 정상에 “산포”를 발견하였다. 이는 독도자위대가 만든 위장 대포였다. 이 발견에 의해 일본은 독도는 무장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다음 “다케시마 순시”에서 ‘헤쿠라’는 “산포”가 위장 대포임을 알았다. 이때에 ‘헤쿠라’는 “산포” 대신 박격포에 의해 포격을 당하였다. 이 포격은 독도자위대가 가한 것인데 포탄은 ‘헤쿠라’에 멀리 미치지 않았다. 독도자위대는 12월 말에 희망자가 경찰관에 특별히 채용됐으며, 계속해 독도를 수비했으며, 한국의 독도 수호체제가 강화되었다.

포격 사건을 계기로 순시선의 독도 침입 빈도가 급감해 1955년에는 연 3회 정도로 줄었다. 순시는 3해리 이상 떨어져서 이루어졌는데, 1959년에 한·일간에서 제일 한국인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문제가 일어나자 순시선은 점점 깊이 침입하게 되고, 9월에는 순시선은 보트를 내려 독도 지근거리로 접근하였다. 독도에서 송환 선박을 공격할 가능성을 살폈다고 생각되는데, 이 해에 순시선에 대해 독도로부터 공격은 없었으며 독도 수호체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일관계가 조금 호전됐던 1960년부터 일본은 순시선 파견을 줄이고 “통상경비”라 하여 연 1회 순시선을 독도로 침입시켰는데, 1968년 이후는 “통상경비”를 “주변조사”로 수준을 낮추었다. 그러나 일본이 1977년 7월에 ‘영해 12해리법’을 시행하고 독도 주변 12해리를 일본 영해로 간주하자 8월에 순시선은 독도 지근거리로 다가가 확성기로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독도 경비대는 총구를 순시선에 향하거나 신호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 군용기가 순시선 마스트를 스칠 정도로 순시선 위를 날았다고 한다. 순시선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한국은 ‘영해 12해리법’을 1978년 5월에 시행하였다. 이즈음 독도 주변 12해리 안에는 많은 일본 어선이 조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을부터 한국

은 일본 어선이 독도 주변 영해 안에 들어오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 순시선도 12해리 안에 들어가기를 삼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독도에 헬기장을 1981년에 건설하자 일본정부는 순시선을 독도 가까이 파견하였다. 이처럼 독도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일본은 순시선을 독도 지근거리에 파견하였다. 이는 독도에 일어난 변화를 조사하고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독도의 물리적인 탈환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독도에 경비대가 주둔하는 한 일본 순시선에 의한 독도 탈환은 불가능하다. 또한 일본 자위대에 의한 무력 탈환은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하다. 즉 일본이 힘으로 독도를 탈환하는 방도는 없다.

【참고문헌】

한국어

- 경우장학회, 『국립경찰 50년사』, 경우장학회, 1995.
- 김윤배·김점구·한성민,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시기에 대한 재검토」, 『내일을 여는 역사』 43호, 2011.
- 김호동, 「독도의용수비대 정신 계승을 위한 제안」,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3』, 영남대학교, 2011.
- 내무부, 『경찰십년사』, 백조사, 1958.
- 「독도의용수비대장, 고 흥순칠 “육필 수기”」, 『신동아』 1996년 4월.
- 박병섭,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독도연구』 17호, 2014.
- _____,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연구』 16호, 2014.
- _____, 『독도어업의 역사와 영유권문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 _____,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 『STRATEGY 21』 35호, 2014.
- _____, 「일본의 새 논조와 일제시대의 독도 어업」, 『독도연구』 9호, 2010.
- 외무부, 『독도문제 개론』, 1955.
- 정병준, 「1953-1954년 독도에서의 한일충돌과 한국의 독도수호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1집, 2012.
- _____, 『독도 1947』, 돌베개, 2010.
- 주강현, 『울릉도 개척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해양경찰 60년사』, 해양경찰청, 2013.
- 《경향신문》, 《동아일보》, 《영남일보》, 《조선일보》

일본어

- 高崎宗司, 『検証 日韓会談』, 岩波新書, 1996.
- 広瀬肇, 「海上保安庁による竹島対応行動」, 『島嶼研究ジャーナル』4卷2号, 2015.
- 小野啓一, 東京高等裁判所宛, 「陳述書」, 2013.
- 外務省, 「日韓関係文書」, 文書番号 910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その1.
- 田村清三郎, 『竹島問題の研究』1955.
-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 1965.
-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 澤富造·井川信夫, 「復命書」(1953.6.28), 『竹島漁場調査報告』(島根県立図書館所蔵).
- 海上保安庁, 『十年史』, 平和の海協会, 1961.

海上保安庁, 『海上保安庁30年史』, 海上保安協会, 1979.

《読売新聞》, 《山陰新報》, 《日本海新聞》, 《朝日新聞》 島根地方版, 《毎日新聞》
島根地方版

<Abstract>

Japanese Invasion on Dokdo and Korean Defense Activity after World War II

Byoungsup Park

Japanese invasion on Dokdo started from 1953 after WWII. On May, Japanese government practiced a 'Takeshima(Dokdo) crackdown patrol' when 'Shimane-maru(島根丸)', a boat of Shimane Prefecture confirmed Korean fisher's activity on Dokdo. Armed officers of Japan Coast Guard (JCG) landed on Dokdo and set up territory poles and ordered Korean fishers to withdraw from the island after interrogating them. Japanese government believed a possibility of recapturing Dokdo by this patrol. First way of recapturing is to strengthen the patrol activity on the island and prevent Korean fishery activity. Indeed, JCG patrol boats invaded 26 time to Dokdo during a year. These invasions angered Korean people. Once, Korean police patrol team, Sunlaban have shot Japanese patrol boat and removed territory identity poles. However, Japan set up every time territory poles as soon as she knew removal of poles. As a result, Japan occupied Dokdo 80% of the term until middle May of 1954 by setting them up.

The second way of recapturing Dokdo is to resume Dokdo fishery activity by Japanese, which was practiced on May 1954. The result of fishing off Dokdo was not satisfactory for them and they never tried fishing again. The second way was naturally abolished. Also recapturing the island by Japan

became difficult when Korea Marine Police strengthened patrol activity. Furthermore, Koreans strengthened Dokdo guard from Aug. 1954 by the cooperation between civilian and police. They repelled JCG patrol boats by firing. Then, Japanese government abandoned recapturing Dokdo by force and started to search a diplomatic solution.

From 1960s, invasions of JCG patrol boats to Dokdo was decreased to once a year except some cases. But when Japan put ‘12-mile Limit Law of Territorial Waters’ into effect, JCG patrol boat announced that Takeshima (Dokdo) was Japanese territory at the nearest distant of Dokdo. Soon, it was evacuated by the Korean defense activity. Next year, Korean enforcement of ‘12-mile Limit Law of Territorial Waters’ deterred Japanese invasion on Dokdo waters except special cases.

Key words: Korea Marine Police, Sunlaban, Dokdo Self Defense Guard, Hekura Shooting Matter, Japan Coast Guard, 8th Division of Coast Guard Office, JCG patrol boats.

이 논문은	2015년 4월 30일에 투고하여
	2015년 5월 10일까지 심사하여
	2015년 5월 25일 게재 · 결정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정 병 준*

〈목 차〉

1. 머리말
2. 전후 '독도문제'의 기원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3. 2차 대전 전후 연합국 대일영토정책의 변화
4.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이후 '독도문제'
5. 맺음말

〈국문초록〉

제2차 대전기 연합국은 전시회담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에 관한 정책에 합의했다. 카이로 선언(1943)과 포츠담선언(1945)은 전후 일본의 영토가 주요 4개 섬과 연합국들이 정할 작은 부속도서로 한정된다고 결정했다. 일본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항복이 성립되었다.

전후 미국과 영국에서 대일평화조약을 다루던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이러한 전시 합의를 기초로 삼았다. 이러한 전시 합의에 기초해 연합국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첫째 일본령에 포함될 작은 도서들을 특정하고(일본령 도서의 특정), 둘째 1천 여 개를 상회하는 작은 도서들을 문서상으로 표시하기 불가능했으므로 경도선과 위도선을 활용해 일본의 영역을 표시했으며(경위도선의 활용), 셋째 복잡한 조약초안을 이해하기 쉽게 일본영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해 첨부했다(첨부지도의 활용). 이에 따라 1947년과 1949년에 제작된 미국 국무부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와 1951년 제작된 영국 외무성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가 작성되었다. 이들 지도들은 모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거나, 일본령에서 배제될 지역으로 특정하고 있다.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은 1945~49년간 전시 합의한 대일영토정책이 유지되었으나, 1950~51년간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냉전이 격화되면서 영토정책에서 전시합의는 폐기되었으나, 새로운 정책은 논의·합의·결정되지 않았다. 1950년 대일평화조약 특사로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